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시편 11편 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8월 17일 (토) 제 1742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은 총기 폭력 증오하신다!

CT, 마크 갤리 편집장 '크리스천들이 총기사용규제 앞장' 촉구

최근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총기를 통한 일련의 대량살상 사건을 두고, 크리스천티투데이(CT) 편집장 마크 갤리는 사실을 통해 인간의 역사와 거의 같아한 폭력의 악순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크리스천이 왜 총기 사용 규

제에 찬성해야 하는지를 밝힌다(God Hates Gun Violence: We American Christians have a biblical call to reduce firearm deaths in our land).

폭력은 거의 처음부터 인간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창4:8).

창세기는 폭력이 곧 풍토병이 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13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폭력을 극도로 싫어하신다. 우리는 특히 예언서들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다.

에스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였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8:17). 호세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12:1). 오바다: "네가 네 형제 야

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1:10).

성경을 신뢰한다면 폭력은 성경을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점에,



총기폭력이 증가세에 있는 미국에서 총기규제는 필연적으로 보인다.

모든 미국인들은 주목해야만 한다.

미국 사회가 폭력적인 문화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폭력이 만연한 다른 국가들 즉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및 자메이카와 비교해도 살인율이 훨씬 높다. 미국을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세계 보건기구(WHO)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총기 살인율은 백만 건당 0(영국

에서 3(핀란드)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미국의 36에 가까운 나라는 전무하다.

1966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가장 대량 총격 사건을 겪은 국가에서 프랑스는 10명, 러시아는 15명, 필리핀은 18명이었다. 미국만이 90명이

를 입증할만한 몇 가지 증거가 있다. 1987년에서 1996년 사이에 호주에서는 네 차례의 총격사건으로 인한 대량살상으로, 의회는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강화법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로 지난 6월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량 총격 사건이 없었다. 1994년과 2004년 사이에 미국에서 폭행 무기(총기, 도검류 등) 소지가 금지됐을 때, 총기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금지 전에 총기 범죄의 2%만이 폭행 무기와 관련됨). 만약 금지령이 계속 시행됐다면, 총격으로 인한 범죄나 대량살상은 한 단위 수치로 감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즉 공격 무기를 포함한 총기제한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과 같은 국가는 총기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미국보다 여전히 낮음) 범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양쪽 주장에는 유효한 점이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이 토론에 참여할 때, 신앙이라는 그늘에만 피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14면으로 계속>

총기사건 "이제 그만(ENOUGH)!"

타임&허핑턴포스트, 2019년 총기난사 현황과 온라인 '에잇찬' 소개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8일과 9일 배포 예정인 8월 19일 자 최신호 표지를 공개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자로 빼곡히 찬 표지 중앙에는 '이나프'(Enough, '충분하다' 또는 '이제 그만')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그리고 253개의 단어로 표지가 가득 채워져 있다. 각각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임지가 왜 이러한 섬뜩한 디자인으로 커버를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The Story Behind TIME's Gun Violence Cover).

표지 전체를 채운 건 올해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내 도시의 이름이다. 불과 며칠 전(4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오하이오주 데이턴부터 총 22명이 숨진 텍사스주 엘패소까지, 올해 들어 미국 내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최소 4명 이상이 총에 맞거나 숨진 도시는 무려 253곳에 달한다. 매일 하루 한 곳 이상에서 총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표지 디자인을 맡은 샌프란시스코 출신 아티스트 존 마브로디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표지를 "총기 폭력에 허덕이는 국가의 섬뜩한 초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는 "표지를 자세히 보다보면 각각의 도시 이름이 실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각각의 사건은 실제 인물들을 나타낸다. 그리고 총기사망 사건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도시 이름을 넘어 총기난사 사건의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2019년 들어 총기난사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 엘패소 총기난사 사건이후 사이트 서비스가 중단된 '에잇찬(8chan)'이 어떻게 미국의 폭력 극단주의자들의 온상이자 양성소가 됐는가를 살펴본다.

1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미국 2개 도시에서 대학살이 일어났다. 31명이 숨졌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는 10명이 죽고 26명이 다쳤는데, 올해 들어 251번째 총기난사였다. 하루 뒤에 이 압울한 기록은 255건으로 늘어났다.

허핑턴포스트 영국판은 2019년에만 발생한 미국의 총기폭력에

대한 핵심 사실들을 정리했다 (This Is The Number Of US Mass Shootings So Far In 2019: After a brutal weekend of attacks, we take a look at some of the key facts around gun violence in America).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후후이제일기독교회

16면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u.edu | (2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2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온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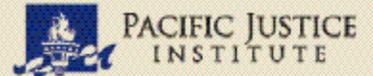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Rev. Sunja Kang Memorial Lectureship



"당신의 교회는 안전 하십니까?" 법과 교회 세미나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막강한 힘과 빠른 속도로 임습해 옵니다. 물론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에서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란 생소한 주제를 통해 "법과 신앙", "법과 목회", 그리고 "법과 전도" 등 현재 교회의 목회에 당면한 법적인 현안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오는 9월 9일(월)-10일(화) 양일간 "법과 교회"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Randy Sung Ju



Michael Peffer, Esq



Brad Dacus, Esq

일시: 9월9일(월)-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장소: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
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태평양법률협회 대표),
주성철 목사(태평양 법률협회 한국인 디렉터),
마이클 페퍼 변호사(태평양 법률협회 Santa Ana Office 상임 변호사),
대상: 목회자(목사, 전도사), 교회리더 70명 선착순
등록비: \$30(교재, 점심식사 제공)

강의일정: 9월 제1강의: 캘리포니아주 성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권리(강사: 주성철 목사)
제2강의: 문제있는 교인 인도방법과 교회 안전을 위한 방해자 및 출석자 관리(강사: 마이클 페퍼 변호사)
10일 제3강의: 목사, 교회 그리고 개인의 권익(강사: 브래드 대쿠스 대표)
제4강의: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강사: 주성철 목사)
문의: (661)618-9392, (213)407-1710

주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



발행인 칼럼

우리나라 만세



김성국 목사 (켄츠장로교회 담임)

지난 주일에는 한국에 있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날 그 교회는 "제 74주년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렸다. 그 날 그 교회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곡조에 맞추어 애국가 1절을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마음이 먹먹했다.

돌아켜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던가. 구한말 스스로의 쇄국정책, 일제 강점기, 남침에 따른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등의 굴곡을 거쳐 자유, 경제, 문화, 기독교, 선교 대국을 일으키며 온 세상을 한류열풍으로 몰아간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위대하고 자랑스런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작금(昨今)의 대한민국을 보면 마음이 천 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하다.

왜 나만 그럴까. 이렇게 국격(國格)이 떨어지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외면과 조롱과 협박이 다반사가 된 적이 언제 있었던가. 나라 안에서 지역이 나뉘어진 것을 지나, 점점 더 이념이 나뉘어지고, 세대가 더 나뉘어지고, 남녀가 더 나뉘어지고, 안타깝게도 교회도 더 나뉘어가는 것 같았다. 모두에게 느껴질 아픔에도 서울의 거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애써 참는 것인가, 진짜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실 나는 얼듯 보였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뒤에 있는 두려움의 긴 자락을.

길을 잃으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가. 역사에서 찾을 것인가, 경제에서 찾을 것인가, 군인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정치가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다소 참고는 될지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있던 길을 지운 자들이 그들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바른 길을 찾으려면 유일한 길인 신, 그리스도께 물어야 한다. 예수님은 길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직접 길이 되셨다. 스스로 십자가 지심으로 길을 보여주셨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은 있다.

지난주에 갔던 교회에서 마지막에 일어나 함께 부른 복음찬송은 이렇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현실을 보며 탄식만 하지 말자. 상황을 보며 눈물만 짓지 말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를 사람들이 어찌 허물 수 있겠는가.

주님만 높이는 나라로, "우리나라 만세"

정체성 갈등 "다시 일본을 위대하게!" 허접 속내 드러내

②세계 언론이 보는 지금의 일본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마디로, 일본의 국가 정체성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으로 회귀하고 싶은 속내를 들어 낸 단적인 예라고 본다.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아베 정권은 "일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모토로, 과거역사청산 부인으로 뒤쳐질까 불안한 나머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일본인들을 몰아붙이고 있다(Ahead of the Tokyo Olympics, Japan ponders what it means to be Japanese: Japan is still not comfortable with its own sense of identity).

<1741호 1면 탐 기사에서 계속>

내년 여름 하계올림픽이 열리면 세계의 눈은 일본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실을 매우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매스컴은 벌써부터 올림픽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자는 제안에서부터 일본식 이름의 영어 표기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일종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더 이상 1964년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처럼 최첨단 기술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국가가 정체성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지만 일본만큼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곳은 드물다. 일본은 "니혼론", 일본이라는 국가를 정의하는 것은 무



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서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자 하지만, 두려워하는 국가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동시에 선진국 클럽의 불편한 멤버이기도 하다. 독일과는 달리 과거 전쟁사를 완

과장돼 있었는지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에게 이는 공포로 다가온다.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 일부는 비롯한 보수 수정주의자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데서 답을 찾고 있다. 영광스럽고 때로는 픽션에 가까운 과거에서 영감을 얻어 "다시 일본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1957년 미국에 의해 쓰여진 헌법을 다시 쓰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 군대의 정상화가 주장의 핵심이다. 신격화된 천황이나 신도교를 일본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한 개념 자체가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은 변화에 매우 민첩하게 반응하며 적응해왔다. 서구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구의 경제, 군사, 정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에서 제 3위 경제대국으로, 전쟁을 시작한 국가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과정은 놀라울 정도다. 치는 것 이상의 의미이기도 하다. 당신의 말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아베 정권 "2차 대전 이전 회귀가 일본 정체성 확립" 몰아쳐 후쿠시마사태 대응 "역경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일본" 부각시켜

엇이며 일본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 하나의 장르를 이루고 있을 정도다.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들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다루어 내놓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정체성은 일본인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상에 의해 일찍이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한때 일본인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보았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천황은 (2차 대전 이후 신의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태양의 여신의 직계 후손이다. 이 같은 사상은 일본이 아시아 일부를 식민지화 하는데 뒷받침했고, 2차 대전 참전의 동력이 됐다.

그러나 바로 그 전쟁에서 패해 미국의 점령과 군대의 해산을 겪으면서 이 정체성이 가진 힘은 파괴됐고, 나라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일본은 새로운 내러티브를 추구하게 됐다. 1945년 이후 일본은 평화주의적인 경제 강국 건설에 온 국민의 전력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의 붕괴와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새로운 내러티브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은 포스트 2차 대전 내러티브의 새로운 버전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대표되는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일본"이라는 정체성이다.

와세다대학의 데이비드 르헤니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일본인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능력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은 일본의 불안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다. 두드러지는 동시에 잘 여우러지기를 원하

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일본의 자기 이해에 위협이 된다. 평생직장이던 만능직은 셀러리맨의 신화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벽돌과도 같은 가족의 모습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살고 일하는 외국인의 숫자도 전례 없이 많아졌다. 피츠버그대학의 사회학자 아키코 하시모토는 이런 변화들로 인해 일본인의 단일성이나 단합과 같은 개념이 애초에 얼마나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려면 최소한 소수의 사람들과 정직하게 삶을 나누고, 신뢰하고, 서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다. 그러면 당신의 변화된 마음에서 가르침이 자연스레 흘러나올 것이고, 이것은 임의로만 떠드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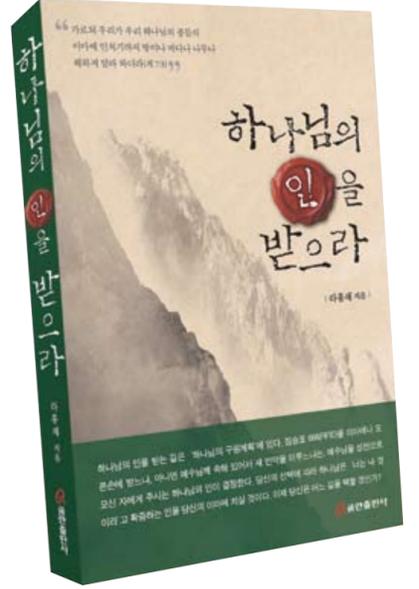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장: 유원정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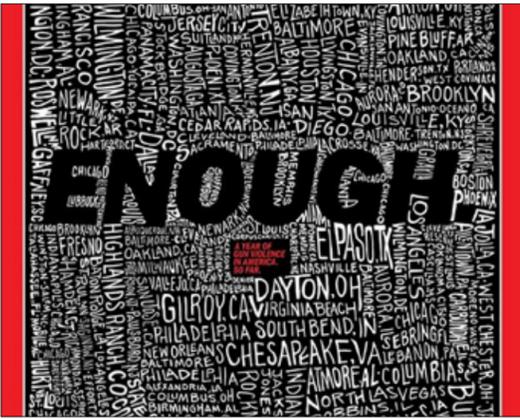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총기사건 “이제 그만(ENOUGH!)”

(1면에서 계속)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의 기록에 따르면 8월 5일 오전 기준으로 총 255건이 있었다. 총기난사(mass shooting)는 일반적으로 최소 4명 이상이 총에 맞은 사건을 가리키는 단어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엘패소와 데이턴의 총기난사 외에도 지난 주말에는 다른 총기난사(4명 이상의 사상자)가 3건 더 있었다. 2명이 죽고 17명이 사망했다.
2019년에 일어난 총기난사 중 가장 사망자가 많았던 사건을 3개 꼽으면 다음과 같다.
△텍사스주 엘패소, 8월 3일, 22명 사망, 26명 부상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 5월 31일, 13명 사망, 5명 부상 △오하이오주 데이턴, 8월 4일, 10명 사망, 26명 부상 △올해 총기난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주는 캘리포니아로 총 32건이 발생했다.

총기를 보유한 미국인은 몇 명인가?
2018년 6월 소형화기 서베이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보유한 총은 3억9300만정이다. 주민 100명당 120.5정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개인 소유주의 화기 등록을 막는 연방법이 있어, 미국에 총이 얼마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전화 조사에 따르면 32-42%의 미국인이 자기 집에 총이 있다고 말했다.
총기 보유가 늘고 있나? 위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총기량



사망자는 얼마나 발생했나?
‘총기폭력아카이브’에 따르면 275명이 죽고 1,067명이 다쳤다. 총기난사가 워낙 흔해져서, 미디어에서 거의 다루지도 않는 사건들이 많아

폭력극단주의자 온라인 양성소 ‘에잇첸’ 엘패소 총기난사 사건 후 서비스 중단

졌다.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주 길로이에서 총기난사가 벌어진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뉴욕 브루클린에서 12명이 총에 맞았다. 그러나 매체에서는 길로이만큼 크게 다뤘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12명이 총에 맞아도 미국은 시큰둥하다. 전국 신문과 케이블 뉴스 채널은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는 어디인가?
텍사스(45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40명)다. 전국 보건통계센터에 의하면 2017년에도 이 두 주는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텍사스 3,513명, 캘리포니아 3,184명)였다.

은 4.16%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총 증가는 3.4%다.
한편 엘패소 월마트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패트릭 크루시어스가 범행 전, 자신이 왜 이러한 범행을 계획, 실행하는지를 올린 온라인 게시판 에잇첸(8chan)이 따가운 주목을 받고 있다(How 8chan Became A Breeding Ground For Violent Extremism).
에잇첸은 편견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으로 악명 높은 온라인 게시판이다. 뉴욕타임스는 “총기 사용자들의 메가폰”이라고 명명할 정도로(‘Shut the Site Down,’ Says the Creator of 8chan, a Megaphone for Gunmen), 이전의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엘패소 범행

용의자는 에잇첸에 범행계획과 깊은 증오에 기반한 동기를 알리고 다른 게시판 사용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를 것을 권했다.
크루시어스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제거 또는 살해해야 할 ‘침입자’(invaders)라 부르며, 자신이 이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망라한 3페이지 분량의 선언문도 함께 올렸다. 그는 이 선언문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모스크에서 51명을 살해하는 장면을 생중계 한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에게서 영감을 받았으며 칭송하기도 했다. 크라이스트처치 범인 역시 3월 테러 직전에 에잇첸에 백인 우월주의 선언문을 올린 바 있다.

격화의 온상이자 바이럴에 의한 악명을 꿈꾸며(바이럴(Viral)은 바이러스(Virus)의 형용사형으로 바이러스와 오컬트의 합성어, 카더라, ‘감염시키는, 전이되는’ 등의 의미가 있다. 즉 바이러스가 전염된 듯이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을 의미한다) 학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에잇첸에서 과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범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최근 5개월간 각각 무슬림, 유대인,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범인이 셋 있었다) 사망자 수도 분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잇첸은 완전히 익명이어서 증오를 부추기고 다중살인을 저지르라고 말하는 곳으로 사용된다.” 엘패소의 비극을 취재한 NBC의 극단주의 담당기자 벤 콜린스의 말이다. “현재 이 웹사이트와 관련된 사망자 집계는 있다.”
에잇첸은 2013년에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레드릭 브레넨이 만들었다. 브레넨은 환각 성분이 있는 버섯에 취한 상태로 에잇첸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몇 년 뒤 인터뷰에서 브레넨은 에잇첸을 포첸(4chan)

크라이스트처치 사건 이후 약 한 달 뒤, 캘리포니아 포웨이의 유대교 회당에서 ‘AR-15’와 비슷한 모양새의 공격용 소총을 든 백인 십대 남성이 여성 1명을 사살하고 람비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공격 직전 범인은 에잇첸에 반 유대인 선언문을 올리고 “나는 여기 오기 시작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배운 것은 정말 귀중하다”고 썼다. 다른 사용자가 곧 “하이 스코어를 올려라”고 답했다. 최대한 많은 유대인을 죽여 게임에서처럼 점수를 더 따라는 뜻이다.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자처하는 에잇첸은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모임 장소 중 하나다. 익명으로 사용하고 잘 관리도 되지 않아 증오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점점 커졌다. 과

보다 더 발언의 제한이 없는 곳으로 구상했다고 밝혔다. 포첸은 다른 온라인 게시판 ‘AR-15’와 비슷한 모양새의 공격용 소총을 든 백인 십대 남성이 여성 1명을 사살하고 람비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공격 직전 범인은 에잇첸에 반 유대인 선언문을 올리고 “나는 여기 오기 시작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배운 것은 정말 귀중하다”고 썼다. 다른 사용자가 곧 “하이 스코어를 올려라”고 답했다. 최대한 많은 유대인을 죽여 게임에서처럼 점수를 더 따라는 뜻이다.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자처하는 에잇첸은 극단주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모임 장소 중 하나다. 익명으로 사용하고 잘 관리도 되지 않아 증오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점점 커졌다. 과

시론 정직한 교회가 소망을 말할 수 있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다.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어느 한 구석에는 작은 빛을 밝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역사 속의 인물을 찾아서 지혜를 구하곤 했다.
오늘 한국의 당면한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문제이다.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고 미국과 중국 소련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국가들 등 지구촌 이웃들과의 관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 제재 해법도 정치적 해법도 사용해보지만 근본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듯 하다.

오늘 교회의 당면한 문제 또한 관계문제이다. 신학과 신학이 늘 부딪쳐왔고 전통은 변화와 다투면서도 지킬 것과 버릴 것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늘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아우대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 나의 판단과 주장은 있는데 기준선인 성경조차 나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판단과 주장이 되어 안타깝지만 결국 다툼의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무생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때, 나라와 교회에 이정표가 될 만한 인물이 다시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다. LA의 음악인, 연기자, 그리고 지망생들이 참여해 만든 ‘뮤지컬 도산’을 통해 오늘을 사는 이민자들, 오늘을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지난 3월 초연에 이어 앵콜공연으로 올려진 LA공연에서 이 작품은 나라사랑과 그 사랑의 방법들을 제시해주었다. 22막의 스토리 요소요소가 때론 큰 소리로, 때론 작은 소리로 들려온 메시지의 결국은 ‘정직함’이었다.

청소년기에 언더우드 의 구세학당(현, 경신중고등학교)에서 신학문을 접하고 기독교정신을 만난 도산은 60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 그를 평가할 최후의 단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그는 큰 사람, 깊은 사람이었다. 성실, 인내, 의지, 열심... 모든 단어가 도산과 만나면 사랑으로 승화했고 그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한 곳으로 귀결되었다. ‘정직.’ 도산이 그렇게도 조국의 독립을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짖던 외침은 그를 성실하고, 참고, 열심히 의지를 굽히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 정직했다. 그렇게 살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렇게 도산이 떠난지 80년이 지난 올해, 그가 정직을 품고 살며 나라를 사랑하던 이 미국 땅에서 그 분처럼 ‘동포’로 살아가는 이민자, 특히 차세대 젊은이들이 도산을 불러냈다. 이들이 쏟아낸 땀의 열정이 뮤지컬로 부활했고, 탁월한 달란트로 3시간을 이끌어간 최원현(도산 역)의 힘은 도산의 정신까지 부활시켰다.
우리는 오늘 위기 앞에 서있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신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너무 비대해져서 위기이고, 너무 높아져서 위기며, 너무 편해서 위기이다. 억압받고 빼앗겼던 도산의 시대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역사 속에서 불러낸 도산의 생각들과 그의 삶이 절절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서야할 자리는 어디인가.
이민교회,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루어내야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아버지가 돈이 많아 야 자식들에게 남겨졌는가?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로 남겨져있으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으로 좋은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같은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100년전 도산이 무얼 이루어냈는가? 그는 1938년 병상에서 쇠약한 환자로 세상을 떠났다. 이루고자 했던 것이 실패인 상태에서 그는 떠났다. 그런데 그는 살아나서 오늘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와야 한다. 오히려 순박해지자. 오히려 단순해지자. 오히려 처음의 미숙했던 자리로 돌아가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다. 하비루의 인생들이 창조주 앞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 서야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리는 것이 정직한 삶이다. 수모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날뎛 앞에서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솔직해지고 말씀 앞에서 정직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는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신학대학(원)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D.Min.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리더십철학박사 Ph.D. in Counseling 상담철학박사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u/accreditation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선택

혼란스런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한 후 59세의 나이로 전격적 은퇴를 선언한 황제, 그의 발상은 아주 충격적이었다. 이런 일은 로마 제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은퇴할 때 친구이자 공동 황제인 서로마황제 막시미아누스도 물러나게 했다.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으나 선임 황제요, 자신을 황제로 임명한 분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또 그를 존경하기도 했고 그

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책략이 출중한 그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정체가 퇴임함으로 부제로 있던 콘스탄티스(콘스탄틴의 아버지)와 갈레리우스가 황제의 대권을 이어 받게 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은퇴식은 305년, 니코메디아 가까운 곳에서 거행했다. 그는 황제의 상징인 자줏빛 옷을 벗고 마차를 타고 달마티아(현 크로아티아)로 갔다.

그는 은퇴한 후 이런 고백을

했다. "여러 명의 고관들이 함께 일을 꾸며 군주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권위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격리된 황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직분을 약하고 간사한 자들에게 주고 덕망 있고 유능한 신하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 아주 뛰어난 현재들마저 간사한 죄에 넘어갔던 일이 그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지도자는 국가의 중대한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는 973번의 외침을 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선(?)한 민족으로 미화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작은 나라로 이어왔기 때문이요, 한마디로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고구려 같은 큰 나라도 있었지만 말이다.

작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판단력이 아주 중요하다. 결국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치열한 고독과 고민이 있다.

역사적으로 큰 치욕을 당한 왕들이 있다. 한 사람은 인조요, 또 한 사람은 선조다. 두 사람 다 무능했던 왕들이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신하들은 두 패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다. 오랑캐 나라에 협조할 수 없다는 명분론과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실리론이었다.

그런데 실리를 주장한 사람은 적었고 몰매 맞을 상황이였다. 고로 목소리가 크고 다수를 인조는 따랐다. 그 결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를 당해야 했고 그것도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피가 낭자하도록 이마를 돌바닥에 찌어낼 때 오랑캐에게 협조하면 안 된다던 신하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신의 판단 착오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아들에 자리를 넘겨주어야 했지 싶다.

그 후 인조는 어떻게 했는가? 볼모로 잡혀가 엄청난 고생을 견디며 새로운 학문을 익

힌 세자였다.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웅대한 꿈을 가지고 성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시키하고 질투하여 끝내 죽음을 몰아넣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선조 역시 비슷한 존재다. 일본의 형편을 살피라고 두 사람을 통신사로 보냈다.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동인에서는 김성일을, 서인에서는 황윤길을 보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김성일은 왜구의 침략 가능성을 부인했고 황윤길은 반드시 침략할거라는 상반된 보고를 했다.

전쟁을 대비하는 일은 항상 힘든 일이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또 병사를 뽑아 훈련시켜야 한다. 병사들을 먹이고 월급을 주고 무기를 구입하는 이 모든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나 신하들은 손쉬운 선택을 했다. 그 후 2년 만에 국가는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 속대밭이 되었고 선조는 걸음아 날살리라며 평양으로 도망을 쳐야 했다.

안동을 갔다가 선조를 수행

했던 유성룡이 전쟁 중에 투구로 사용하면서 야영 중에 왕을 위해 밥을 짓던 투구를 보았다. 선조는 때때로 한숨을 몰아쉬며 집의 부덕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맞습니다! 왕의 무능함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백만 명이 죽었음) 백성은 기아로 죽어가고 있으니 오늘 저녁은 금식하시지요? 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이런 역사를 가진 우리인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다. 힘도 없으면서 말이다.

이런 때, 링컨 대통령처럼 국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당신도 카펫이 낱아지기까지 기도했던 탁월한 지도자, 그래서 미국을 하나 되게 하고 위대한 미국의 기틀을 다졌던 링컨, 그런 지도자가 목마르게 그리워진다. 지도자는 위기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선택으로 온 국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장용호 목사
(엘파소영린문장교회)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거지 맹인에 믿음의 확신은 어디까지인가?

거지 맹인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인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보다 더 나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인의 소원은 성전에 들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4-47).

그러나 이제 맹인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 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행하여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풀을 밟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밟로 더럽혔느냐"(겔 34:18). 그 당시의 목자들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하찮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하찮게 여겼던 일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마25:33)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목회자의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을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는 평화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또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11:9).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땅에 위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평강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야 거지 맹인처럼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하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맺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되고, 거지 맹인처럼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본분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후 4:5)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nybabo@gmail.com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건의 지역은 여리고이며, 거지 맹인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여집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지 맹인이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먼저 사건이 있었던 여리고에 대하여 살펴보고, 거지 맹인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는 믿음을 살피는데, 그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이 근거가 되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전하려 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지역인가?

여리고는 신약과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있고, 탐스러운 물질로 인하여 야간의 범죄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일이 있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세우고 성결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태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면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기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거지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거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잡아먹고 있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겔 34:2).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연약한 자에게 생명의 풀을 먹여야 하고, 설 곳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고 포악으로 다스렸습니

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인하여 흠여지게 되었고 이방 신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상한 자를 싸매 주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며, 정의대로 살진 자와 강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약속하십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중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맹인을 고치시다

누가복음 18장 35-43절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맹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눅 18:43).

맹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에 살면서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에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민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준 것과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것과 병든 자들 돌본 것과 옥살이를 하는 자에게 찾아간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양 떼에게 생명의 양식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도 그러하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 삼자가 죽으시고 피 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양 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셔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적극적 행동이 필요한 캘리포니아 법안들과 그 현황(상)



SB 24: 약물을 통해 더 손쉽게 저질러지는 캠퍼스 대학생들의 낙태(College Student Chemical Abortions)

발의안 위험 요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물 낙태를 통하여 학생들이 태아를 죽이는 살인인 낙태를 더 용이하게 여기도록 하며 태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법안 발의자: Commie Levya(민주당-San Bernadino) 주 상원의원

발의안 요약: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보건소가 학생들에게 약물에 의한 낙태를 "기본건강서비스"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의한 낙태는 생후 10주까지 태아를 죽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약물낙태에는 두 가지 약이 포함됩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Mifepristone/RU-486과 심한 경련과 수축, 출혈을 일으켜 자궁에서 태아를 밀어내는 Misoprostol이 그것들입니다. 당연히 어린 대학생 여성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발의안 현황: SB 24는 주 상원에서 통과되었으며, 주 하원 보건부와 고등 교육 부서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행동 지침: 여러분의 해당 캘리포니아 하원들에게 SB 24에 반대투표를 하도록 항의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Tvnext.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B 175: Foster care 아이들에 성전환자 호칭을 쓰도록 강요하는 법안

발의안 위험 요소: 정부가 AB 175를 통해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성전환 호칭을 강요하는 문을 열어주며,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성전환 호칭을 부르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하나

이 주신 고귀한 형상을 무너뜨리고 불필요하게 자신의 모습에 불안과 불만을 갖도록,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성별을 버리고 또 다른 성별, 성향을 찾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법안 발의자: Mike Gibson(민주당, LA) 주 하원의원

발의안 요약: 이 법안은 현행 "양호위탁(Foster) 청소년 인권규정"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 호칭으로 언급될 권리며 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Foster Care Youth들에게 아직 담배도 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십대 나이에 이들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 및 몸치장 그리고 자유로운 성관계를 위해 필요한 위생품을 제공받을 권리, 아이의 성적 성향(친동성애), 또는 성별



정체성과 표현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이의 나이,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과 표현(동성애적)에 맞추어서 학교 동아리나 퍼레이드, 그리고 그 밖의 활동들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AB 175 발의안 현황: 주 하원 사법부와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은 주 하원 세습 사용결정위원회에서의 공청회

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동 지침: 주 하원 세습사용결정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AB 175 발의안에 반대하도록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AB 624-학생증(Student ID)에 낙태를 위한 긴급전화번호 표시

발의안 위험 요소: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낙태를 먼저 생각하도록 잘못 인도하게 될 것이며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hood를 자신들의 카운슬링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법안 발의자: 주 하원의원 Jesse Gabriel(민주당, LA)

발의안 요약: 이 발의안은 모든 공립 학교와 일부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생신분증(ID Card)을 통해 Planned Parenthood과 같은 낙태 클리닉들에게 Planned Parenthood의 낙태 무료 광고를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AB 624는 모든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있는 학생신분증에 성적 또는 낙태제공자 핫라인, 전국 성폭력 핫라인,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모든 사립학교에도 동일하게 요구되었지만, California Family Council과 다른 종교 자유단체들의 압력이 있을 후,



성적(sexual) 및 낙태 핫라인은 사립 7-12 학년을 둔 학교와 신앙에 기반을 둔 대학에는 의무화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7-12학년과 대학은 다른 두 개의 핫라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진행 현황: AB 624는 하원 교육부와 고등교육세습사용결정위원회(High Education and Appropriation Committees)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전체 하원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 여러분의 해당 캘리포니아 하원들에게 AB 624에 반대투표를 하도록 항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tvnext.org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tvnext.org@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상호 모순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 가르쳐준 기도인 주기도문(마6:9-13)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요?

-토렌스 이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은 주로 3종류입니다. 첫째로 이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학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터툴리안(Tertulian)과 키프리안(Cyprian) 교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하루를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이 "양식"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리겐(Origenes)과 어거스틴(Augustine)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한 근거는 피상답자가 질문한 것처럼 오늘날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

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궁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날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 즉, 음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같은 장 25절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는 이 "양식"을 "인간적 삶의 모든 조건들"로 해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생활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미국생활을 위해 그날의 양식 먹고 마시는 것 뿐 아니라 집과 차와 일체의 필수품을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3가지 해석을 다 취하되 일반적으로 세 번째를 가장 많이 취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의 오늘날은 영어로 Today입니다. 오늘 하루분의 생활필수품을 구하라는 것은 내일과 장래의 문제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치게 걱정하며 두려워 말라는 의미입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9년 8월 31일
광고 접수마감 2019년 7월 31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x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15.5cm x 5.8cm	\$350.00	
	전면 1/4	7.7cm x 11.7cm		
15.5 x 2.8cm		\$250.00		
전면 1/8	7.7cm x 5.8cm			
	Listing size	\$1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nychpress@gmail.com, lachpress@gmail.com로 보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브힘(BHM)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한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중국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인도의 인구는 9억3천5백만 명 이상이다. 전체적인 인구밀도는 1평방 마일당 762명이다.

인도는 4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히말라야 산맥, 북부 하천의 평야지역, 데칸 고원, 동서부 가츠 산맥이 있다. 다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후조건 또한 계절과 지역에 따라 열대기후에서 온난기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성의 한가운데 23,800명 정도의 브힘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동부지역에 있는 트리푸라 주에 주로 거주한다. 그들의 언어는 분류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생활양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카스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그들의 농지는 극히 작으며 대개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가축, 특히 뿔이 있는 소, 물소, 말, 노새 등을 키우는 것은 농업경제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은 고기로 이용되기보다는 거의 전부가 짐을 지는 짐승들이다.

인도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은 엄격한 카스트(caste)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카스트'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혈통, 종족, 족속을 의미한다. 인도사회는 일반적으로 동족결혼(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을 하는 위계적인 카스트들로 나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

이나 친족관계와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나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회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일부 부족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브힘인들을 정확하게 카스트 제도 안에 위치 지을 만큼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특정한 생활양식을 적절히 설명할 수는 없다. 브힘인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신앙

브힘인들은 주로 그들 조상의 전통과 종교를 따라서 전통종교(80%)를 믿는다. 그들의 종교는 주로 애니미즘이며, 그들은 살아있는 생물과 또한 무생물들이 혼이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들은 또 다른 작은 신들의 신전과 그들의 화신이 된 물체, 배우자나 자손도 숭배한다. 윤회에 대한 믿음은 힌두교에서 한결같이 믿는 특징 중의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른 대부분의 정령숭배자들과 마찬가지로, 브힘인들은 많은 신들을 두려워하며 거기에 묶여 생활한다. 복음을 분명하게 소개받거나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더더욱 거의 없다. 또한,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은 없으며, 현재 그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없다. 브힘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접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임 선교사, 성경번역가, 기독교매체 전문가, 열정적인 중보기도자들이 모두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하나님의성회, 첫 여성 사무총장 선출

미국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AG) 105년 역사에 첫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AG는 최근 총회에서 오하



이오주 클리브랜드 목사이드교회 돈나 버렛(59)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가 보도했다. 사무총장은 AG 교단 안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임원으로 임기는 4년이다.

AG 교단 톱 리더십으로 총회 감독인 더그 클레이는 "버렛 목사는 교회 개혁자이자, 지방회리더, 총회의 사역자로서 다양하게 활동해왔다"며 "겸손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남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평했다. 버렛 목사는 "과거 주님께 받은 사명 이상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는데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버렛 목사는 사무총장으로서 AG 교단 산하 목회자들의 자격 심사, 교단법,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단 기록보관소 업무도 병행한다. 미국 AG 교단은 320만명의 신자와 1만3000여개 교회가 소속돼있다.

버렛 목사의 사무총장 선출로 AG 내부적으로는 젊은 세대와 다인종 출신의 임원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G 교단 자체 통계에 따르면 소속 신자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이며 43%가 소수인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14년 설립된 AG 교단은 여성들의 설교 사역과 리더십을 지지해왔다. 현재 교단 목회자 24%가 여성이다. 이는 미국 내 개신교 목회자 중 9% 미만이 여성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교계 지도자들 '백인우월주의 악과 싸우자'

"그리스도는 백인 우월주의를 초월한다"(미국 뉴욕 엠파운사도교회 존 스타크 목사).



"대량 총기 살인은 대륙이 아니다. 그것은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악, 그 자체이다"(내시빌 임마누엘교회 레이 오틀랜드 목사).

최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이 인종주의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북을주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촉발한 이번 사건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북을주의 지도자들은 빈번한 총기 사고로 인한 비극 앞에 슬퍼하지만 말고 이를 악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SWBTS) 아담 그린웨이 총장은 엘패소 총기사고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SWBTS 총장으로서 우리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폭력 사건이 인종적 우월과 열등

에서 촉발된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 남침례회 소속 지도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남침례교신학교 데니 버크, 앤드류 위커 교수 등은 '내셔널리뷰'지에 '이 악을 짓밟으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고 미국의 총기 난사 문제의 뿌리가 백인우월주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엘패소 비극'은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이다. 21살의 범인이 월마트로 들어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이 공격은 텍사스에 침입한 히스패닉인들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백인 기독교인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백인우월주의에 대한 반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방송 설교가이자 하베스트크리스천텔레비전 그리스 로리 목사와 텍사스주 프리스턴우드침례교회 켄 그레이엄 목사 등도 가세해 미국의 총기사고는 사탄의 활동이며 교회는 이에 대해 영적 전투를 감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최근 빈도가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에서 열린 '길로이 마을 축제'에서 총격으로 4명이 사겼고 그 전날에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총기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3일 엘패소 사고 직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오하이오주에서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 9명이 숨지기도 했다.

엘패소 지역은 개신교회뿐 아니라 가톨릭교회 등에서 추모 예배와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CT에는 과거 총기사고에서 부상당한 생존자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작가 테일러 슈만은 자신의 총기 사고 경험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올렸다. 다음은 기도제목.

1. 육체적 상처와 고통, 앞으로의 치료과정을 위해 기도하자.
2. 생존자들의 보이지 않는 상처를 위해 기도하자.
3. 부상자들을 치료할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자.
4. 범인의 정보나 얼굴 사진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5. 악몽을 꾸지 않도록, 잠을 잘 자고 침을 얻도록 기도하자.
6. 치료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료비용에 대비하도록 재정을 위해 기도하자.
7. 또 다른 총기사고로 인한 반복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자.
8. 장기간에 걸친 회복 과정에 강한 지지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9. 향후 법적 처리 과정 속에서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자.
10. 다른 생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11. 계속 기도하자.

美학생들 '방탄 책가방' 메고 등교

최근 미국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대규모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탄 책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9월 신학기를 앞둔 학생들이 앞다퉈 방탄 책가방을 구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 책가방은 온라인은 물론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또 지난 3일과 4일에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는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방탄 책가방의 제조업체 '스카이라인'의 사장은 "방탄 책가방이 인기를 끌고 있어 올해 몇 차례나 매진됐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방탄 책가방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총기난사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방탄 담요, 방탄 후드집업, 교실 내에 설치하는 방탄 커튼 등도 판매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탄 제품이 실제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라인 등과 같은 방탄 책가방 생산 업체는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에서 자신들의 제품이 9mm 권총 등을 막을 수 있는 IIIA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브래튼 전 뉴욕 경찰청장은 "실제 총기난사 사건에 자주 사용되는 총은 권총이 아니라 소총"이라며 "현재 판매되는 방탄 책가방이 소총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미 중학교교사, 학생들에게 성적취향 물어 논란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과학수업 시간에 '어느 성에 끌리는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등의 질문이 담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눠줘 논란이 됐다.

캘리포니아 지역신문인 '모데스토 비(The Modesto Bee)'는 "데네어 중학교 교사 루이스 다빌라 알바라도가 7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성적 정체성을 묻는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학부모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알바라도는 개학 첫날 성적 정체성,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성별,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성별 등 성교육에서 다룰 법한 질문이 적혀있는 유인물을 약 50명의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하지만 알바라도는 학생들로부터 답을 얻지 못했다. 이날 교내를 돌아다니던 교장이 유인물을 발견하고 배포를 중단시킨 것이다.

테리 메츠거 데네어 교육감은 신문 인터뷰에서 "아만다 실바 교장이 2학기 시작 첫 날에 학교를 방문했고 유인물을 보았다. 교장은 즉시 배포를 중단하라고 교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알바라도는 사건에 유인물 배포를 허락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이 유인물 배포 중단을 지시한 이유는 알바라도가 과학 시간에 성교육을 했고 내용도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메츠거 교육감은 "교장은 유인물이 잘못된 이유를 알바라도에게 설명했다"며 "성 정체성은 과학 수업 시간에는 다루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메츠거 교육감은 알바라도가 유인물을 나누어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Mr' 대신 'Mx'를 쓰는 이유를 이해하기 바라며 유인물을 나눠줬다"고 전했다. 'Mx'는 'Mr'와 'Ms'를 대체하는 성중립적인 존칭이다.

알바라도에게 유인물을 받은 한 학생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교사가 트랜스젠더라 평소 학생들에게 질문이 많았다"며 "그는 이 유인물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성적 매력을 논할 일이 없다"며 학교에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교사의 성적정체성과 교사의 결정에는 관심이 없다"며 "하지만 교사가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과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지식들에

게 단절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교는 알바라도의 정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총기 조희 강화, 의회서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미국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신원조치를 놓고 상·하원의 지도부 간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총기 사건으로 텍사스주와 오하이오주에서 31명이 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전국총기협회(NRA), 그리고 다른 이들과도 얘기를 나눠왔고, 그들의 아주 강한 견해는 충분히 대변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총기는 정신질환자나 정신이상자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총기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가장 큰 옹호자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모두 국가의 선(善)과 안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상식적인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위험인물의 총기류 소지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적기법(붉은깃발법)과 총기 거래자의 신원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NRA는 이 두 조치 모두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NRA는 공화당을 후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익단체다. 그동안 총기규제 논의는 번번이 NRA의 로비에 막혀 입법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NRA의 웨인 라피에르 회장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원조치 강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웨인 회장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휴회 기간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총격 사건 이후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 소집을 요구하고 공화당 미치 매크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내용 소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을 통해 김 위원장이 전날 보냈다는 친서에 대해 설명했다. AFP통신이 전했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워게임(war games)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며 "알다시피 나도 전혀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자신이 먼저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는 "내가 (한미연합훈련을) 백악관에 들어온 날부터 싫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미연합훈련을 '워게임'으로 칭했다. 취재진이 그것은 북한이 쓰는 용어 아니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 용어"라고 반박했다.

변화를 위한 변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가 필요한 때가 찾아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것을 수용해야 한다.

중세의 1000년 역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을 세우는 기간이었다. 길고 긴 세월동안 생겨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 '중세'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가 모든 것이었다. 일반 중세사는 교회의 역사를 피해갈 수 없다. 등장인물과 사건 대부분이 직, 간접으로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을까? 변화를 위한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미 살펴본 대로, 영국의 존 윌리엄스 또는 체코의 안 후수와 같이 교회 안에서 자성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전환의 동력-르네상스

중세시대의 특징은 '신정정치'라고 정의해도 큰 무리가 없다.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수용한 중세사회의 시민은 '신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신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으며, 교회는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했다. 그들은 성경적 신앙심과 상관없이 제도화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커다란 역사적 전환을 일으켰다.

르네상스는 '재생'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자연과 과학은 물론 문학, 미술, 건축 등 삶과 밀접한 분야에

다.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였다. 역사적으로 후에 일어난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북유럽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

전환의 배경-봉건사회의 붕괴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42)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서 일어난 혁신 운동이다. 8세기 카롤링거 르네상스와 유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나무를 제대로 보려면 숲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숲과 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산맥의 특성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봉건사회 붕괴, 부르조아 등장으로 개혁 변화 조짐 르네상스 정신,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

술가등 많은 인재를 초빙하여 로마제국 문예를 부흥하는데 힘을 쏟았다. 인류사에 최초의 문예부흥을 주도한 것이다.

그러나 샤를마뉴 르네상스가 종교적이었다.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남김 가장 커다란 업적은 소문자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동기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이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응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출된 것이

도 커다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생겨났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그 중 하나는 중세 유럽의 정치제도인 봉건사회의 붕괴이다. 농업 중심의 사회는 성직자, 귀족, 그리고 농노 계급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샤를마뉴 제국이 붕괴되면서 중앙 정부의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잦은 전쟁과 흑사병 같은 사회 불안 요소가 고조되면서 사회제도에 변화가 찾아왔다.

로 플로렌스, 제노바, 베니스 등의 상업 중심의 도시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이전에 없었던 계급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부르주아로 불리는 중산층으로서, 화폐 경제체제로 변화되면서 상업적 성공과 함께 부를 누리며 새로운 세력을 행사하였다.

전환의 배경-고대문헌을 접함



무가 발전하였다. 14세기 유럽 은행 분야를 주도한 것은 베니스였다.

이런 변화에 대하여 교회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 은행가자를 고리대금이라 간주하고 반대하는 등 목소리를

심의 세계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특히 봉건주제가 붕괴된 후 중산층이 사회적 엘리트로 등장하면서 이 상적인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는 고대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들은 고대 라틴어와 고대 헬라어로 기록된 문서 번역과 연구에 매진하였다.

어떻게 그들이 고대문헌을 접할 수 있었을까? 십자군 운동을 포함한 유럽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십자군 운동과 함께 서방 유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동방 비잔틴 문화의 요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동로마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 아니다. 1453년 이슬람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정복당했다. 고대 로마제국의 후예로 자칭하던 동로마 제국이 지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봉건제도의 붕괴와 함께 도래한 시대에 적합한 변화를 추구하던 르네상스 인들은 개인의 사상적 성장을 부추기는 새로운 정신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의도적으로 교회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 했다. 북부 르네상스는 교회에 대하여 매우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전환의 배경-고대문헌을 접함

전환의 다른 배경은 고대문헌을 통해 고대지식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중산층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인간 중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Southern California (CA) with logos of angels and a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리더십 코멘터리 (94)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번 아웃된 리더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번아웃된 리더들이 많다. 소진(Burnout)이란 심리적,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수많은 의사결정, 성과에 대한 압박 등 리더에게 가해지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무게가 높아질수록 더욱 증가하기 마련이다. 번아웃된 리더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번아웃(Burnout) 되는 이유가 뭘까?

최근 한 유명 목회자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미국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다. 얼마 전 남가주 인랜드힐스교회를 담당하는 앤드류 스토클린 목사가 스스로 목숨

리더와도 진솔한 고민을 나누기는 어렵다. 팔로워들도 자신의 평가권을 가진 리더에게 쉽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리더가 공동체에서 가지게 되는 권력이 리더를 외롭게 만든다.

③자기과신: 목회자나 기업의 리더는 공동체 내에서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일반 구성원에 비해 강하기 마련이다. 또한 역경을 극복해온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문제는 자신감이 지나쳐 과신으로

직에서 리더는 외로울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물론 리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른 사람이 해결해줄 수도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 리더 본인만큼 해당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권한위임: 리더는 보통 공동체 내에서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은 불가피하다. 여기서 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일은 리더 개인에게도 부담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공동체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리더의 소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한위임도 효과적일 수 있다.

리더여, 에너지를 재충전하라

리더는 지성을 통한 능력을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책을 읽기 싫거든 사역을 그만두라"고 한 존 웨슬리의 말처럼 리더는 리더(A leader is a reader)가 되어야 한다.

①영성에너지를 재충전하라: 영성에너지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리

말씀묵상, 기도 등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에너지 재충전 인성, 사회성, 체력 에너지도... 신뢰할 상대와 대화, 권한 이임

을 끊었다. 스토클린 목사는 평소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으로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장애는 비단 스토클린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와 번아웃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리더의 정신건강 문제를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번아웃(Burnout)이 되는 이유가 뭘까?

①의사결정의 피로: 리더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린다. 사소한 것부터 공동체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은 리더의 주요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자원을 상당히 소모시키는 일이다. 의사결정의 결과 리더 본인뿐만 아니라 구성원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 부담감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의사결정 피로(Decision Fatigue)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②외로운 리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외로워진다는 말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기가까지만은 사람들이 경쟁에서 탈락했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이러면서 자신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소진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역량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떠한 인간도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번 아웃(Burnout)을 어떻게 대처할까?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로 번아웃된 리더에게 힐링이 필요하다. 리더가 잃어버린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①재충전: 소진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자극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을 시간이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시간을 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긴 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재충전 방식이든 일상적인 업무로부터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의 대화: 조

는 열정, 창조력을 가지고 사역에 임할 뿐 아니라 사역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자기를 재충전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 지행의 힘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영성에너지의 가장 핵심은 말씀과 기도이다. 말씀묵상과 말씀암송을 통해 영성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사람들을 권면, 상담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②인성에너지를 재충전하라: 리더는 인성을 개발해야 한다. 혈기를 이기지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교훈처럼 리더에게는 감정관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리더가 되려면 열기, 두려움, 염려, 우울 등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③사회성에너지를 재충전하라: 인간관계도 에너지이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의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④체력에너지를 재충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음식을 통해 육체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한다. 또 몸이 피곤하면 영적 생활도, 사역도 어려워진다는 면에서 체력은 영력이라고 할 수 있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진정한 예술가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1-2년마다 한 번씩 가지는 '자매수련회'이다. 자매님들만 한 곳에 모아 놓으면 평소엔 그렇게도 얌전하고 내성했던 자매님들이 그동안 못 놀은 한이라도 풀려는지 너나 할 것 없이 목숨 걸고 놀아주는 분위기 때문에 절로 화기애애한 시간 속에 서로의 맘이 활짝 활짝 열려 그 안에서 치유가 그냥 일어난다. 넘 좋다. 교회

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쩔지 서원하고 아직도 서툰 것 같다. 그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데려다 놓은 사람들인데 말이다.

올해는 1박2일 짐들을 싸들고 수양관을 찾았다. '집 나온 것 축하합니다!' 북한말로 시작된 우리의 수련회는 그야말로 소풍 나와 즐거워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머언 길을 달려오며 간만에 자연의 넓은 들판과 하늘... 너무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임에도 우린 처음 보는 양 참 맛있다... 넘 좋다고 호들갑(?)이다. 참 우리 맘이 힘들 때에는 지적에 널리 있는 들판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지냈다. 텍사스에 널리 게 들판인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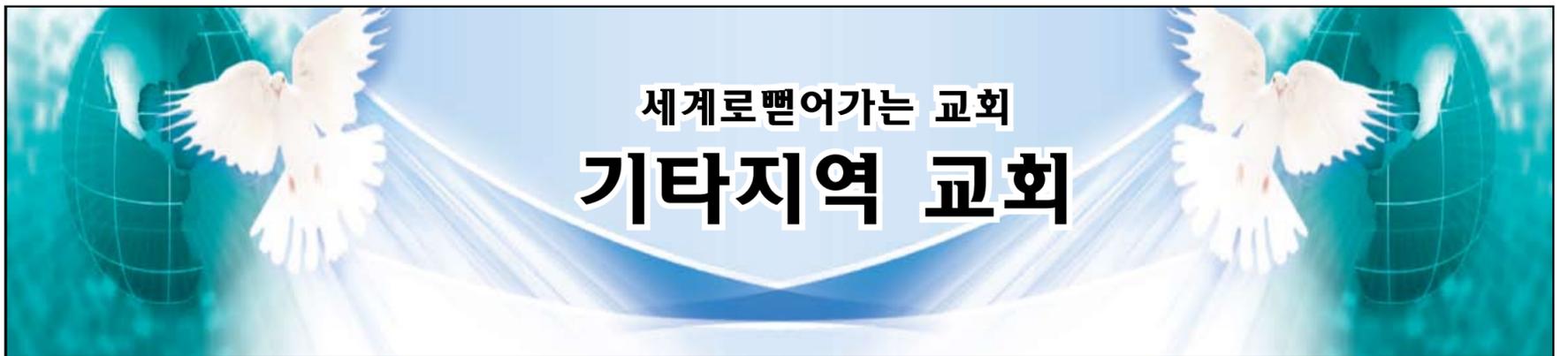
그렇다. 산다는 일이 싱거워질 때가 있다. 그래서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나 보다. 그럴 땐 그저 외로움 속에 자신을 내버려두어 본다.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늘 혼자이길 원하는 것 같다. 누군가 내 삶에 개입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한 연세 드신 집사님은 전화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하하. 자식도 하나 없이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진저리가 나시는 것이라... 그 분도 사랑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양인데... 내 책임인양 가슴이 아려온다. 그래서 큰맘 먹고 찾아가려고 하면 금주 오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게 편하신 거다.

우리는 과거엔 소유했었으나 현재 잃어버린 것들을 한탄하고 사는 한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은 파랑새를 품에 안고도 파랑새를 찾아 헤맨다는데... 마치 등에 업은 아기를 온 종일 찾아 다녔다는 어느 할머니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낙원인데 우린 그 낙원을 찾아 어디로 발남 헤매고 다닐까.

어느 칼럼에서 읽은 '진정한 예술가는 스스로 붓이 되어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그렇다. 진정한 예술가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름다움에 맞추어 그려 나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고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감동이 느껴져서 울컥 눈물이 나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예술가들이 우리이면 좋겠다.

changsam0120@g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38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티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회, 위, 연례: 오전 10:45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위헌년: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회, 위, 연례: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Court,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영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b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회: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인생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더 아름다워지려고 애써 노력을 합니다. 더 아름다워지려고 눈물겹도록 애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

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M. D. Babcock 목사님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라고 시작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어 간혹 야외 예배를 갈 때 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목청을 돋우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어 우리 하나님

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매우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창1:4, 10, 12, 18, 21, 25). 그런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지은 후에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알지도 못하고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추하고 더럽고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다운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알고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안경을 껴야 합니다.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는 아름다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

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창조 의도를 알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창1:26). 2)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창1:26).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창1:28). 2)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창1:28). 3)남자와 여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창1:27).

의 묘비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꽤 알려진 유명인들의 묘비의 글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이슬처럼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 보구나 람라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다", 중광이란 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김수환 추기경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애라", 바나드쇼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는 묘비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시로 표현한 고 천상병 시인의 시로 목회서신을 마무리 하려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빛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인/터/뷰

오버플로잉교회 담임 김충만 목사

이민교회 본이 되는 교회되길

지난 2011년 9월 25일 남가주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에 15세들을 위해 개척한 오버플로잉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제자공동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나라의 사역에 임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이 교회의 2대 담임으로 취임한 김충만 목사는 "저희교회는 성령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에 근거한 소그룹 모임에서 얻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으로 사역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담임목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통해 불러주셨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대전비례영광교회, 캐나다 밴쿠버 영광교회, 남가주 하노커뉴니티교회와 다운니제일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던 김충만 목사는 부교역자 시절에 비해 담임목회에 임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회사역에 대한 본질은 같다고 생각해요. 다만 담임목사로 말씀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시간에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먹여야 하는 것이구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고 있는 장जू리 전도사는 김충만 목사의 부임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같다고 말했다. "1대 담임 목사님은 황무지 같은 곳에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2대 담임목사님은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시절부터 지켜온 가정을 이룬 성도들이 일일이 심방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김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청년교회에서 벗어나 오렌지카운티에 접지만 말씀과 예배 기도가 뜨거운 교회로 세워지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김충만 목사는 목회사역 이외에 청년들의 공민문화사역을 위해 헌신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대전 기독교문화원 영성지도사역자로, 뮤지컬 드라마 팀 안무 담당자로 사역했으며 미국에 와서는 LOG 문화사역팀 대표로 섬겼으며 현재 크리스천문화모임 감성인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5년간 LOG로, 1년간 감성

사역을 해 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세요. 청년들과 소통해 나가시는데 거리낌이 없으시거든요." 본 교회 장년담당 한정자 목사는 "요즘 교회들이 아쉬운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져서 많이 안타까웠다"며 "저희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저희 교회를 통해 교회들이 안타까움에서 본받고 싶은 교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데 그러한 청년들을 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김충만 목사님은 청년들과 잘 소통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충만 목사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고 커왔다. 담임목사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도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지만 담임목사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팀목회가 잘된 교회는 소통의 원활함이 있지만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담임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것과 사역팀들이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역 이 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한인교회의 숙제이자 제 숙제"라고 말했다.

말씀묵상, 기도 등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에너지 재충전 인성, 사회성, 체력 에너지도... 신뢰할 상대와 대화, 권한 이임

님을 만났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상처도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안정감을 갖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고 좋은 담임목사님들 밑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배움을 가졌습니다." 사역현장에서 겪은 개인적인 어려움은 경험적인 부분이 라 말했다. "아무래도 유학생 출신이다 보니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온 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에 괴리감이 있었어요. 청년사역도 10년 정도 했고 성인사역도 했지만 그분들이 삶에 제가 살아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사역하면서 1년 정도 아이티 직종의 회사에서 종사하며 직장인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 것이 괴리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 교회 개척멤버로 사역하

인을 통해 문화사역을 해왔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봐요. 성육신을 통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셨듯이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장 전도사는 "김충만 목사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위한 문화

를 통해 문화사역을 해왔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청년들과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봐요. 성육신을 통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셨듯이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도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장 전도사는 "김충만 목사님께서 젊은 세대들을 위한 문화

총기사건 "이제 그만(ENOUGH)!"

(3면에서 계속) 왓킨스는 군복무 중이었던 1990년대에 시작한 포르노사이트로 번 돈으로 자신의 기업 N. T. 테크놀로지를 통해 에잇첸을 사들였다. 왓킨스는 2017년 버즈피드 인터뷰에서 에잇첸에 올라오는 극단주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극단주의 포스터들을 흔쾌히 받아주었다. 에잇첸은 내내 온라인 증오 캠페인과 표적을 정한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다중 살인자 살인자들의 영상 및 이미지, 극단주의자 선언문과 프로파간다가 게시판에 돌아다. 일부 게시판에서는 경찰서에 가짜 음급신

고를 해서 무장 경찰들이 표적의 집에 찾아가게 한 적도 있었다. 이는 '스왈팅'(swatting)이라 불린다. 구글은 아동 포르노가 올라오는 것을 우려해 2015년부터 검색 결과에서 에잇첸을 제외했지만 매달 수백만의 방문자가 찾아간다. 엘패소 사건 후 다수를 상대로 한 폭력을 조직하는데 에잇첸이 기여하고 있음을 브레넌 본인이 인정했다. 8월 4일 뉴욕타임스의 케빈 루스와의 인터뷰에서 브레넌은 "사이트를 달아라. 세상에 아무런 좋은 영향도 끼치지 않고 있다. 거기 사용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부정적이

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에게도 부정적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다보니 에잇첸에서는 누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도덕적인 글들을 올려도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가능성이 낮아 트롤들이 활동하기 이상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에잇첸에는 외국인혐오, 인종차별, 퀴어혐오, 여성혐오, 이슬람혐오,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이 올라온다. 소셜 미디어 대기업들 대부분이 폭력적이며 증오에 찬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페이스북 등은 가짜계정, 익명계정들을 단속해 유저가 정체를 숨기고 포스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에잇첸은 다른 온라인 중재자와 마찬가지로 제 3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저들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법적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이버 괴롭힘 전문가들은 1996년에 생긴 통신법 230조가 온라인상의 학대를 가능하게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으나,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극단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모여 자유롭게 살인을 계획하며 서로를 고무하고 있다. 에잇첸 유저들은 이미 엘패소 용의자를 '성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러 해 전 증오에 기반한 다중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영웅이라고 칭송받고 있다. 일부 살인자들은 테러를

저지르기 전 증오를 담은 메시지나 선언문을 에잇첸에 남기기도 했다. 최근 미국내 테러리스트들 상당수는 공격전에 에잇첸 등의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 증오와극단주의 의문조사센터가 최근 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역제되지 않은 온라인 증오와 사전에 계획된 오프라인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법적 개혁 외에는 에잇첸 등의 디지털 소굴에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다. 증오 사이트 연결을 막기 위해 해커들이 디도스 공격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에잇첸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자처하는 테크 대기업 클라우드퍼머로부터 거의 뚫을 수 없는 정도의 사이버 보안을 받았다. 클라우드퍼머의

클라우드퍼머는 4일에 에잇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피가 흘렀고 대중의 분노가 강렬해 클라우드퍼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오래 걸렸다. 클라우드퍼머는 4일에 에잇첸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피가 흘렀고 대중의 분노가 강렬해 클라우드퍼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 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너무 오래 걸렸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가정폭력예방 뉴저지목회자 컨퍼런스'

뉴욕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가정폭력예방 뉴저지목회자 컨퍼런스'가 8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홀리네임종합병원(매리안 강당)에서 열린다. 오전 9시부터 혈액검사를 시작으로 컨퍼런스(진행자 박근재 목사) 후에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패널리스트는 제임스한(뉴저지경찰청 형사), 이원호(뉴저지경찰청 경찰관), 강지나(변호사), 리 앤(홀리네임 응급실 디렉터)이며 △가정폭력신고 △폭력에 따른 의학적 치료 △법적 대응 △Q&A로 진행된다.

▲문의: jackie.kim@kafsc.org 김희선 코디네이터

뉴욕권사신교합창단 제 18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신교합창단(단장 이은숙 권사) 제 18회 정기연주회가 9월 15일(주일) 오후 6시 하크네시야교회(담임 전광성 목사)에서 열린다. 9.11 추모음악회로 칸타타 "골고다의 언덕"(이상윤 작사, 이가영 작곡)을 초연한다. 불우이웃돕기와 선교 자금 모금음악회로 지휘 양재원, 피아노 이정현, 베셀체임버앙상블이 협연하며 오희평, 백성화, 김은희, 김현지 등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917)658-3181, 648-1876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부설 킹스아카데미 한국학교가 9월 21일(토) 개강한다. 2020년 5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총 24주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프리Kinder부터 12학년까지 오후 활동은 선택과목. 수업료는 첫째아이 150달러.

▲문의: (718)886-4646, (917)340-3947

장학생 모집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일 목사)가 제 16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오는 9월학기 기준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이 돈독한 자. 선발인원은 7명 이상으로 일인당 1000달러를 받게 된다. 수여식은 9월 15일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서류는 신청서,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신앙간증문, 성적증명서 등이며 교회웹사이트(www.cpcofny.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마감은 8월 30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문의: (516)387-9940

이노비, KCS코로나경로회관서 콘서트

이노비(회장 강태욱)가 8월 6일 오전 11시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KCS코로나경로회관(관장 헬렌안)에서 퀸즈 지역 한인어르신 100여명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KCS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기관으로서 미주 60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식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연에는 뉴욕일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즈 보컬 김후나씨가 뮤직디렉터를 맡아 아리랑과 '만남' 등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의 노래와 리드미컬한 재즈음악을 연주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렸다. 이 외에도 드러머 최원선, 건반에 김동하, 베이스에 정상욱이 참여했다. 이 공연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후원/공연 문의: 이노비 이메일: enobinc@gmail.com 전화: (212)239-4438 (기사제공: 이노비)

말아 아리랑과 '만남' 등 함께 부를 수 있는 한국의 노래와 리드미컬한 재즈음악을 연주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렸다. 이 외에도 드러머 최원선, 건반에 김동하, 베이스에 정상욱이 참여했다. 이 공연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지금, 기도할 때...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뉴저지교협, 제74주년 광복절맞이 8.15 구국기도회

뉴저지교협(회장 홍인석 목사)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목) 오후 7시30분 뉴저지 프라미스코회(150 Grand Ave Leonia NJ 07605)에서 "8.15 구국 기도회"를 갖는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20:30)"라는 주제로 열리는 구

국기도회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의 시점에서 시기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설교, 찬양과 함께 뉴저지 교계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아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위정자와 정치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한국

교회와 한인교회의 영적각성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드러진다.

교협 관계자는 이번 기도회가 좌파 우파의 주장이 아닌 순수하게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은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뉴욕지회가 주최하는 한국 국회 의원 이연주 시국강연회가 "나는 왜 싸우는가?"라는 주제로 8월 10일 플러스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뉴욕장로연합회가 후원한다.

(유원정 기자)



8월 8일 뉴저지장로교회에서 열린 설교클리닉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디지털문화 부응하는 창의적 설교 어떻게?

제2회 현대설교학에 근거한 설교클리닉, 강사 양성구 박사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대표 김영호 목사)가 주최한 제 2회 현대설교학에 근거한 설교클리닉이 "디지털문화와 혁명에 부응하는 창의적(성경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양성구 박사(George Fax대학교 설교학 교수)를 강사로 열렸다.

설교클리닉은 8월 8일에는 뉴저지장로교회, 9일에는 뉴욕그레이트네교회에서 연속으로 열렸다.

양성구 박사는 △현대설교학이 제시하는 '현대인에게 감동을 주는 창의적(성경적) 설교'의 핵심과 새 스타일 △디지털문화혁명시대의 다양하고 참신한 예설자료들을 새 시대 창의적(성경적)설교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Film과 Fashion을 중심으로) △주일예배와 절기에배위한 창의적(성경적) 설교 작성 워크숍(참석자가 3강

좌 통해 습득한 새 아이디어로 작성한 설교 발표와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교회 안 밖의 넘쳐나는 영화, 미술, 음악, 건축, 패션, 사진, 조각, 뮤지컬, 시, 미디어아트 등의 현대적이면서 영성이 담긴 예술들을 기독교 메시지와 영성에 연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디지털문화에 젖어있는 현대인들에게 알아듣고 깨닫기 쉽게 효과적으로 감동을 주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는 40여명의 참석자들이 작성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현대목회사상학에 근거한 교우들의 정신건강 △현대인들에게 감동 주는 새로운 강해설교 어떻게? △교회내 갈등 예방과 치유를 주제로 세미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미동부크리스천아카데미)



KCS코로나경로회관에서 이노비 음악인들이 공연하고 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 목회자후원회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입양아 신분 찾기 서명운동 전개

WHF, 목회자후원회(WHM) 모임 가져

월드허그파운데이션(WHF, 대표회장 송병기 목사, 이사장 김명순 권사)이 지난 7일 오전 11시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목회자후원회(World Hug Ministry)를 가졌다. 이날 WHF는 조직을 발표했다.

예배는 사무총장 김진화 목사 인도로 기도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설교 송병기 목사, 인사말씀 김명순 이사장,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정순원 목사(뉴욕교협 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는 "사랑하는 사람들"(요일4:7-11)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하고 희생을 안 하는 것 같다"며 "WHF를 통해 이 사랑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오는 18일 은퇴를 앞두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조국을 위해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WHF를 만났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한국인 2만명, 외국인 1만5천명의 입양아들이 신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놀랐다. 이들이 한꺼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백만명 서명운동임을 알고 이 일을 힘껏 해보려 한다"고 말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사랑은 전파돼야 한다"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 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묻고 "WHF에 동참함으로 세계를 품고 사랑하자"고 강조했다.

김명순 이사장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는 자존심, 오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며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입양아들의 힘든 상황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길 이사장은 "돈이 아니니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목사님들의 손을 잡고 기도 속에서 일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1불이라도 함께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진화 사무총장은 조직발표에 대해 "그동안 2회에 걸친 WHF 후원의 밤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밝히고 "현재 일본, 중국, 한국에 지부를 설립하고 특히 한국에 서대천 목사가 맡아 50여 교회가 동참했다"고 말했다.

조직은 특별자문위원 30명과 공동회장 허연행 목사, 김성국 목사, 공동부회장 양민석 목사 등 7명, 기획팀 등 16개 팀, 운영총무단 16명 등이다.

한편 입양아 1명을 돕는데 필요한 경비는 2-3만 달러이며 서류준비만 3천 달러가 소요된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금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뉴욕새별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Kyoung), (917)373-3411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일예배: 오후 8:30 (매주1,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1:30 청년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10:50 주일3부: 오전 1: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soonwon@pcov.org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a.org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하와이 및 북미 지역</h2>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church.org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남기주교협 공동주최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 장로), 남기주교협(회장 한기형 목사) 공동주최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가 11일 오후 4시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안신기 목사(남기주교협 총무) 사회로 시작된 1부 기념예배는 김관진 목사(남기주목사회장)가기도를, 김순옥 목사(남기주교협 부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최경환 목사가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나라'(시 33:12)라는 주제 설교를 했다.

최경환 목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다. 시33:12는 미 대통령이 선서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다. 광복은 다시 회복되는 빛의 나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남기주교협이 공동주최한 광복 74주년 기념예배에서 박영남 목사 인도로 전 참석자들이 만세성향을 하고있다

라다. 자유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것이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애국지사들이 몸부림쳐왔지만 독립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45년 8월 원자폭탄투하로 일본 왕이 항복 선언함으로써 나라를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을 위해 고레스를 준비시키셨듯 미국을 준비시켜 자유대한민국이 독립됐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돼 달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실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경호 목사 특송, 권영신 장로(대한인국민회 이사장) 인사말, 박종대 목사(LA한인회 부회장)가 축사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 3남 딸프안 선생이 광복절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복절 노래를 다함께 부른 뒤 박영남 목사(광복회장)가 만세삼창을 인도했으며 이정근 목사(미성대 설립자)가 축도했다.

클라라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 사회로 시작된 2부 축하음악회는 남기주장으로 성가단, 남성중창단, 소프라노 그레이스김, 에버그린여성합창단, 테너 이준실, 한아름 혼성합창단이 출연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는 코리아'와 '여기에 모인 우리'를 다함께 부른 뒤 한기형 목사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기주중부교협 주관 제22회 광복절 기념콘서트에서 딜리버러스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남기주중부교협 제22회 광복절 기념콘서트

남기주중부교협(회장 차권희 목사) 주관 제 22회 광복절 기념콘서트가 11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아모스 목사(순전교회) 사회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CTS혼성합창단(지휘 김명옥), 수어찬양사 김은정 자매의 수어찬양, 딜리버러스 앙상블(지

휘 최은애), CCM가수 그레이스리, 세리토스선교회연합 찬양대(지휘 김연주), 가야금 연주자 이정화, 랜디킴 박밴드, 감사한인교회 사랑성가대(지휘 김명옥) 등이 출연했다.

이날 설교는 심명구 목사(한민감사교회, 중부교협 중경회장)가 맡았다.

(박준호 기자)



뮤지컬 도산 출연자들과 스태프들이 공연이 마친후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이 시대 우리 사명 가능해보는 시간...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기획 뮤지컬 도산 성료

흥사단 미주위원회(위원장 윤창희)와 LA흥사단(대표 민상호)가 주최하고 '무대예술인그룹 시선'(대표 클라라김)이 기획한 뮤지컬 도산이 10일 오후 6시 윌셔이벨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윤창희 흥사단 위주위원회 위원장은 "뮤지컬 도산을 통해 도산의 위대한 삶을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오늘 공연이 있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한 시선 제작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민상호 LA흥사단 대표는 "지난 3월 로마리나 대학교회에서 초연된 뮤지컬 도산은 감동의 무대를 넘어 후세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도산선생의 삶은 한 개인의 역사를 떠나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이자 희망의 역사다. 이번 공연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능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공연이 희망의 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산 안창호 역을 맡은 최원현 씨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며 감사하다"며 "앞으로 많은 감동과 느낄 수 있는 무대예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라라김 대표는 "뮤지컬 도산은 지난 3월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으로 리버사이드에 무대에 올려졌다"며 "대본과 무대 등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좋은 무대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공연시작 한 시간 전부터 이벨극장에 삼삼오오 관객들이 모여들었으며 공연시간이 지나도 계속돼 예정보다 10분정도 늦게 시작했다.

해제정에서 열린 만민공동회의 연설장면과 미국유학, 정혼자인 해련과의 만남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의 과정을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장면까지 하나의 대하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구성이었으며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암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극중 생생하게 소개돼 이벨극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우리선조들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밀려오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회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호성기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 받으라'

충현선교회 설립 34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호성기 목사

충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부흥회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 받으라'라는 주제로 8일부터 11일까지 호성기 목사(팔라나 디옥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금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 둘째 날 저녁집회에서 호성기 목사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마17:14-20)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자녀는 부모의 투사체이며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이라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자유함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자손대대로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호 목사는 "교회는 영적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과 교재로 이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면 보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시고 나의 수준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로 하는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CWM 양육교재 특강에서 강사 조복섭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복음제시 중 확산내용 보충'

CWM 양육교재 특강, 강사 조복섭 사모

CWM(Christ Witness Mission) 양육교재 특강이 6일 오전 10시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공개홀에서 열렸다.

특강 강사로 나선 조복섭 사모(CWM 대표)는 "새가족을 위한 성경공부 교재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시중에 나온 새가족 성경공부교재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론을 많이 다뤘다"며 "CWM양육교재는 교리보다는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신앙의 열심이 생기게 되며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돼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복음제시 중 확산내용을 보충해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사모는 "복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라며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 설명했다.

조 사모는 매 과마다 주님과 의 만남이 이뤄지게 하도록 구성했으며 전도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언급하고 나아가갈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하와이국제신학교 가을학기 개강

하와이국제신학교(총장 노봉린 박사) 가을학기가 8월 22일(목)부터 12월 5일(목)까지 15주간 실시된다. 이번 학기는 로마서에 대해 다루게 된다.

▲문의: (808)354-6844

소망소사이어티 '치매전문 간병인교육' 실시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하는 "치매전문 간병인교육"이 오는 9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망소사이어티 Cypress 본부에서 열린다. 총 8시간에 걸쳐 '진단', '치료', '예후' '편집증', '방황', '쟁여놓기', '공격적 행동', '영양', '개인위생과 관리' 등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을 마치고 자격이 될 경우, "치매전문 간병인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등록비는 교재비 포함 200달러. 선착순 30명. 사전예약은 23일(금)까지.

▲문의: (562)977-4580, somang@somangociety.org

신애라 집사와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강용훈 목사)는 신애라 집사 초청 학부모 세미나를 18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갖는다.

▲문의: (619)223-9999

재미있는 IT 커뮤니티를 위한 강의

재미있는 IT(대표 윤승준 선교사)는 커뮤니티를 위한 IT 강의를 실시한다. △LA지역 비즈니스 클래스는 8월 20일-9월 10일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정오. 장소는 터닝포인트교회 2층(850 Venice Blvd LA). 강의내용은 '구글 드라이브/카카오프러스친구/구글 클래스룸 등을 이용해 나를 알리기'이며 수강료는 200달러. 목회자 사모 클래스는 8월 22일-9월12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정오. 트리니티 유니버시티 205B(2333 Beverly Blvd. LA). 수강료는 80달러, 17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강을 실시한다. 강의내용은 스마트폰 사용에 꼭 필요한 사항들(유튜브 포함)이며 수강료는 30달러. △OC지역은 17일(토) 오전 9시-정오 주님의손길교회(2275 W. Lincoln Blvd. Anaheim)에서 실시하며 수강료는 30달러.

▲문의: (909)971-7720

이민사회와 기독교 포럼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는 설립 115주년을 맞아 '이민사회와 기독교 포럼'이라는 주제의 역사포럼을 16일(금) 오전 10시 용수산에서 개최한다. 패널로는 옥성득 교수(UCLA 한국기독교학), 이덕주 교수(전 감신대 교회사), 김찬희 교수(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등이 나선다.

▲문의: (310)645-3698

이남이 여사 별세

연세과이어, 송실OB 전지휘자인 이영두 지휘자 부인 이남이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65세. 입관예배는 9일 오후 6시30분 시온연합감리교회(231 E Lomita Blvd, Carson, CA)에서 가졌다.

▲문의: (310)991-1013

미주 TEE 지도자세미나

미주 TEE 지도자세미나가 8월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 511 S Loara St, Anaheim, CA)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한순진 목사.

▲문의: (714)350-4211

한기홍 목사 시카고 할렐루야대성회 주강사 초청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가 시카고 지역 연중 최대 교계 행사인 2019 할렐루야 대성회 주강사로 초청받아 집회를 인도한다. 오는 8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김광태 목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집회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남성우 목사(시카고교협, 773-706-2080)

홀러튼장로교회 황인철 담임목사 청빙 결정

홀러튼장로교회 노진걸 담임목사 후임에 황인철 목사가 결정됐다. 황 목사는 해당 노회의 인사절차를 거쳐 10월부터 공동목회를 시작한 후 금년 12월 정식으로 담임목사에 취임할 예정이다. 황인철 목사는 뉴욕의 아름다운교회에서 지난 2003년 림형천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후 2018년까지 담임목사로 사역해왔다.

▲문의: 714 446-9010

"찬송의 회복" 주제, 강사 봉영찬 목사

미주성결교 남기주교역자회 연합수련회

미주성결교 남기주교역자회(회장 안충기 목사, 임마누엘 헬로우신교회 담임)는 LA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 등 3개 지방회 연합으로 여름수련회를 60여명이 지난 8월 5일부터 2박3일간 가졌다.

중가주의 리들리 지역의 한 인최초 미 대륙거점 정착촌이고 이승만,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 거점이고 후원지역이었던 독립문과 독립운동가들의 비문이 있는 파빌론에서 애국심을 다지면서 아침과 저녁에 하와이우리교회 봉영찬 목사(LA동지방회장)를 주강사로, "찬송의 회복" 주제로 요세미티 세코야 등을 방문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이상훈 미성대 총장 황의정 목사 등이 트랙강사로 섭졌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 남기주교역자회)



미주성결교 남기주교역자회 연합수련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광복절 메시지

할렐루야! 올해로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주권을 빼앗겨 식민통치 아래 부끄럽게 살 때,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신앙으로 세우 갈 수 있도록 희망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36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의 어두움의 시대를 통해 권력적 탐욕, 인간 억압, 부정과 부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천대시하는 악습 등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게 하였고, 마음이 갈거리 찢기는 민족적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교훈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해방과 자주 독립을 열망하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일본의 압제 하에 신음하며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

사단법인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푸심으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물질을 의지하고 세사 문화 풍조의 종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모호하고 구제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어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

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잘 인식하고 정책의 부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8월에 “다시는 지지 않는다”,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등 경제주권을 찾고자치를 발표하였고, 이어 일본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미리 알고 대처하였다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던 일들이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마치 마주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일본의 수출통제가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한·일 두 나라 국민의 갈등으로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 5:1)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물질과 권력과 기울어진 인간 철학이나 사상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우리 민족,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위기의 8월에 죄와 사마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과 평안이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8,000만 모든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돼 위기 극복의 길 열자

광복절 앞두고 전국 교회, 단체 기념예배

광복절을 앞두고 주요 교회와 단체들이 기념예배를 드렸다. 최근 한·일 대치 국면에서 열린 예배에서는 아베 정권에 과거사를 직시하도록 요구하고 양국 기독교인들이 양자대화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자는 메시지를 전해졌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위임목사)는 11일 여의도 교회에서 60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74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하성은 이날 예배에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교회가 먼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광복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기하성은 메시지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과 위기를 진단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기하성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한·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국도 정치권의 내분과 그리고 이념 대립으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평화의 메신저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하성은 이를 위해 “일본의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양국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더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본정부에는 “과거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라. 강제 징용자 보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수출 규제를 하루 속히 거두고 선린우호 관계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영훈 위임목사는 이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려운 지금의 상황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다시 열정을 회복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기독교는 절망의 저녁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여는 희망의 종교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를 희망의 미래로 인도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예배에서 성도들은 1919년 3·1운동과 한국의 광복이 가지는 의미, 광복 이후 한반도의 역사와 깨를 같이해 온 한국교회의 역할이 담긴 ‘광

복절 특집 영상’을 시청한 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상황 중계 영상을 통해 전국 기하성 소속 교회와 지성전 등에서 2만여명의 성도가 함께했다.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도 ‘광복절 7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다. 김운성 목사는 “한·일 경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우선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일본을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일회일비해선 안 된다”면서 “신앙인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자들은 연구실의 불을 끄지 않겠다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라. 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고 묵묵히 실력을 키워라”고 당부했다. 교인들은 애국가를 제창하며 광복의 기쁨을 나눴다.

남서울은혜교회(박완철 목사)는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 그레이스홀에서 ‘광복 7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홍정길 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내 속에 있는 악을 먼저 고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라면서 “우리가 서 있는 악한 자리에서 돌이켜 이 땅을 고쳐 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풍토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설교했다.

은평구교구협의회(회장 현희철 목사)는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에서 ‘은평구민 구국 성회’를 개최하고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기념했다. 협의회는 2003년부터 해마다 광복절을 기념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심하보 목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국내외적으로 얽매인 모든 문제들이 자유하게 되길 소망한다”며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도록 기도하자”고 전했다. 2500여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부른 뒤 만세삼창을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이날 광복 감사 주일을 맞아 “한국과 일본이 평등하고 공평하며 평화로운 이웃이 되게 하소서”란 내용의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다. 기도문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에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하심을 찬양합니다”로 시작한다. 한국과 일본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과거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미래를 향하여 용서하며 화해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한다. 예장통합은 9190개 소속 교회에서 공동 기도문과 공동 설교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회여, 기도의 심장을 멈추지 말라’

한교연 제2차 구국기도회…2000여명 참석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5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에서 ‘한국교회여, 기도의 심장을 멈추지 말라’를 주제로 제2차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2000여명이 모인 기도회는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신광준(특별기도회 추진위원장) 목사, 권태진 한교연 대표회장이 차례로 등단하며 오전 11시부터 10시간 동안 진행했다.

권 대표회장은 설교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기도로 무장해 악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한·일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며 “국가 대표 선수들이 나라를 대표해 경기에 나가듯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교연은 다음 달 2일 같은 장소에서 홍정자(예장진리 총회장) 윤호균(화광교회) 박만수(개혁기신 총회장) 목사를 강사로 10시간 릴레이기도회를 개최한다.

“자녀 탓하기 전에 하나님 품어보세요”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제6차 기독교사 수련회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은 12일 경기도 파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 목사)에서 제6차 기독교사 수련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성경적 역사의관과 자녀양육의 원리를 제시했다.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이끌고 온다’의 저자 줄리 조 집사는 싱글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오르기까지의 간증과 자녀 신앙교육의 방법을 제시했다. 조 집사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타인에 대한 정의와 판단이라는 악함이 내면에 있었다”면서 “술한 고난을 겪고 나서 신앙의 본질은 자녀 가족 이웃 나라에 대한 비판·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녀가 교회를 떠나 심하게 방황한다면 아이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정의와 잘못된 삶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방황하는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부모·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좋은 대리인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집사는 자녀를 회복시키는 비결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심하게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

에게서 멀어진 내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부모는 속 썩이는 자녀를 절대 바꿀 수 없으며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면서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녀를 다루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삶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다.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의 성령으로 내어드릴 때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한 김재동 서울 하늘교회 목사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며 선교하는 국가적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북녘땅까지 확산되도록 자유의 소중함을 다음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철인(59) 명지초등학교 교사는 “수련회에 3회째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와 제자를 가르치는 길을 보여줘서 큰 도움이 됐다”면서 “하나님을 삶의 구조로 영접한 교사와 부모에게 유익한 수련회”라고 평가했다. 수련회는 201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2차례 개최되고 있다.

“장년 유튜브 이용자 급증, 목회 활용도 높아야”

목회데이터연구소, 7일 보고서 발표 “유튜브 전성시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장년 세대까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유튜브를 목회에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 지용근)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이크로 유튜브 전성시대이지만 현재 대부분 교회에서 유튜브 활용은 설교 파일을 올리는 정도로 제한적”이라며 “교회 홈페이지에만 동영상 게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유튜브에도 동영상을 올려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연구소가 제공한 통계자료 보고서를 보면 유튜브는 그야말로 대세를 탔다. 나스미

디아가 전국 인터넷이용자 2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영상 시청할 때 유튜브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PC 기반의 경우 88%, 모바일 기반 89%나 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50대 이상 장년 노년층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모바일 기반 환경에서 유튜브 이용률을 보면 10대는 99%, 20대 91%, 30대 87%, 40대는 85%로 나타났다. 그런데 50대 이상은 30-40대보다 높은 무려 89%에 달했다. PC 기반 이용도에서도 50대 이상의 유튜브 이용도는 높았다.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였다.

과거 무엇이든 궁금하면 포

털사이트 검색을 주로 활용했다면 최근에는 유튜브가 검색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글과 이미지보다 동영상에 주는 정보가 더욱 효과적이고 임팩트가 강하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사내용을 보면 검색사이트 이용 채널로 네이버가 92%로 가장 컸고, 유튜브 60%, 구글 56%, 다음 38%, 인스타그램 27% 순이었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이 보유하고 있다.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6월 실시한 유튜브 인식조사에서는 유튜브가 중요한 검색채널이라는 응답자는 64%였으며, 향후 유튜브가 포털사이트 이상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응답도 62%로 높았다.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종류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콘텐츠(37%)보다 개인 제작가

콘텐츠(56%)가 더 많았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만난 콘텐츠,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설교 및 강의 동영상 뿐 아니라 설교 내용 이해를 도움 보조용 동영상, 교회 행사 관련 동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면 다양한 사역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 편집에 익숙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유튜브 특성을 감안해 10분 이내 편집해 올리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지용근 소장은 “이제 유튜브는 단순한 흥미를 위한 공감대를 넘어섰다. 전 세대가 매일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공간이 됐다”면서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잘 활용할 경우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교인에게도 신앙적 경험과 유대감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사실상 불복

지난 6일 입장문 “청빙은 적법한 절차 거친 것” 주장

통합 재판국이 지난 5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명성교회가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는 지난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친 적법한 절차”라며 “김하나 담임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원 전원 이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이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 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원로, 지도자들에게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말로 입장문을 마쳤다.

한편, 통합 헌법은 재판국 재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재재심을 허용하고 있다.

재재심이 허락되는 사유는 원심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원심심판결의 증거 된 증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

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관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등이다.

재재심 결과에 대해 또 다시 재심하는 ‘재재재심’은 불가능하다.

부산 세계로교회 수련회에 4만명 참석

500여 교회 참석... “한국교회 영성회복 위해”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가 개최한 ‘한국교회 영성회복을 위한 하계대수련회’에 연인원 4만명이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열린 수련회에 500개 교회가 참석했으며, 연인원 4만여명이 참석했다”면서 “8명의 강사가 13번의 말씀선포를 통해 말씀과 은혜의 잔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수련회에는 성경동대전 전문침례교회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

회) 송대근(삼일교회) 임현수(캐나다 큰빛교회) 장항희(일산등둔교회) 목사, 안민 고신대 총장, 다니엘김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가수 조성모씨가 간증하고 찬양했다.

손현보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산 세계로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영성회복의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전국에서 오신 4만여명의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 받은 은혜대로 각 교회에서 부흥의 주역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교의 창 (12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미완성 광복(光復)인 대한민국

금년은 광복 74주년이 되는 때이다. 해마다 8월이 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1945년의 8.15 광복을 기억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뇌리 속에서 퇴색되어가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이민 한인사회에서는 민족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이대로 30년, 70년, 100년이 흐른다면 한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뜻 깊은 광복절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조국은 내, 외적으로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그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갈 길은 멀고 더디기만 하다. 광복절이라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아직 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한민족에게 분단을 극복하지 않는 한 광복은 아직 미완성이다.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전 세계 한인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1. 광복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1). 시편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120-134편)중 일곱 번째 노래이다. 유대 민족은 BC 586년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생활 하였다. 그들은 포로생활을 하는 동안 수금을 베드나루 꼭대기에 걸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포로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다시 수금을 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에 의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제 그토록 사모했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꿈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저들에게 완전한 광복은 되지 아니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방 시인들이 우기에 물이 가득 차서 다시 흐르는 것처럼 동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다(시126:4). 이는 남은 자들을 위한 ‘공동체 탄원시’(Poem of

Community for the Laments)인 셈이다. 한량없는 기쁨과 간절한 탄원이 함께 묻혀 있는 본 시는 우리 한민족 교회가 읊어야 할 기도 시가 아닐까?

2. 한민족 역사 가운데서의 광복

광복절(光復節)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압제 아래서 신음하다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光復)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國權)의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에 조인함으로써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다.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주권 없는 민족으로 슬픈 역사가 진행됐다. 긴 식민지통치 하에서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또한 우리민족 고유의 역사와 언어 및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노예상태였다. 일본 군국주의는 세계 패권을 향해 거침

오판이며 비극의 씨앗이었다. 역사의 전환기에는 어디에나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다. 만일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다면 처절한 6.25동족상잔도 없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분단의 아픔과 이념갈등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역사적 논점에서 본다면 한민족 분단은 참으로 역울하다. 굳이 승전국의 전리품으로서 나라 강점을 원했다면 일본이 되었어야 마땅하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를 강점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의 패전국이다. 저들의 죄과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 민족은 남북이 고착화되기 전에 평화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익히 아는 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비밀스러운 전체주의 국가이다. 그곳에는 2500만 명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대신 김일성 3대를 신봉하는 주체사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형제자매요, 한 핏줄인 저들을

없이 나아갔었다. 저들은 마침내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인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로서 우리 조국 땅과 백성들은 완전히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간 빼놓을 수 없는 만행 하나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전역에 신사를 짓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하며 숭고한 신앙을 빼앗아간 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배격한 신사참배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요, 십계명 중 제2계명을 어긴 것이다.

3. 한반도에 광복이 미완성인 이유

우리 한민족은 올해로 단기 4352년의 역사이다. 유구한 역사 동안 우리는 단일혈통, 단일언어, 단일문화를 가진 채 선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직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구열강에 의해서 분단되어 버렸다. 이것은 큰

방치한 채 어찌 우리끼리만 모여 노래하며 만세삼창을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민족에게 광복은 아직 미완성이다.

4. 온전한 광복의 길을 저해하는 세력들

속된 말로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향해 하는 말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28-29일 G20 오사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간 은밀하게 준비한 카드로 한국산업의 급소를 찔렀다. 더욱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명명하기까지 했다. 조금 힘이 있다고 감질을 한 것이다.

송어가 뛰면 망둥이도 뛰다고 했던가? 북한은 철저히 않는 망나니처럼 미사일을 쏘아대며 막말을 퍼붓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어떠한가? 폭격기로 독도 영공을 침입하고 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면 곤란과 역경도 극복해왔다. 이 작은 국토에서 적은 인구로 세계 제1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1위인 상품이 117개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8년 동안 세계기능올림픽 1위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1년이 되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한국이 2040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예측을 했을까? 문제는 통일이다. 남북 평화 경제 협력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갈린다는 통계이다. 통일이 우리민족의 블루오션인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기회의 땅이 되는 셈이다. 그것은 완전한 민족광복을 의미한다. 이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피땀 흘

린 둘째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본다. 남북의 갈등 이전엔 남북의 이념적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누가 이 고통을 메울 것인가? 그리스도의 희생적 본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 이는 한인교회의 몫이다. 우리의 도덕적 각성이 교회의 담을 넘어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셋째 선지적 나팔을 부는 것이다. 열방의 제사장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 우리는 남북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교회는 미시적 관점으로는 개인의 영혼 구원, 거시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겸비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저렇게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맺음 말

우리 민족은 불행해도 역사적 격변기마다 국제정치나 시대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늘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약탈을 당한 과거사를 갖고 있다. 이제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당해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현재 G20국 내이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쉽게 대할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관건이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길을 방해하며 가장 경계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주변국의 수구세력들이다. 우리는 냉혹한 이 현실을 직시하며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야 한다. 내부의 적 1명은 외부의 적 100명보다 무섭다. 우리 한민족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것이 없다. 8백만의 이스라엘이 13억의 아랍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방으로 주여 씬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고후4:8-9)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이다.

6. 완전한 광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2019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한인세계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광복의 가장 큰 의미는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자유 즉, 영혼의 자유에 대한 추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절의 의미를 단순히 역사적 입장에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랑은커녕 오히려 반목하며 지체들끼리 대립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서야 되겠는가? 진정한 참회 없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jrnsong007@hanmail.net

드라마 신약 (2)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지역 LA 지부장 하블스모양교회 담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공백 기간 400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예언하신 그대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로 제국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400년 신·구약 중간시대 때 발생하여 신약의 무대에 나타난 중요 인물들과 직책들, 그리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왕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헤롯입니다(마2:1).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당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입니다.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베 혁명 이후 요한 힐카누스 때 이두매를 정복하고, 그 이두매를 다스릴 왕으로 세운 현직인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대헤롯의 할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4명의 헤롯 중 대헤롯이 예수님 출생당시 왕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열심당

아버지입니다. 헤롯가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둘째는 세레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 이고(막6:18), 셋째는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별레가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립바 1세(행12:23)로서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넷째는 바울이 잡혀서 심문을 당할 때 그 앞에 섰던 아그립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립바 2세(행

26:31)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헤롯은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 2성전인 스투바벨 성전을 증축하였고, 그 성전을 ‘제3의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자, 예루살렘의 2세 이하 영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해에 죽습니다. 헤롯 이후에는 헤롯의 세 아들이 유대를 분할하여 다스립니다. 분할하여 다스렸다고 하여 그 직책을 ‘분봉왕’이라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4명의 헤롯 중 대헤롯이 예수님 출생당시 왕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열심당

고 부릅니다. 분봉왕에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2세가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대가 포함 된 나라의 절반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2세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북쪽 지방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대헤롯을 유대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는데, 정치를 잘 못해서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폭동진압을 위해서 아켈라오는 2-3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함으로 유대 지역은 혼란에 빠지고 로마의 개입으로 진정이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헤롯가문의 통치를 못 받겠다고 탄원하여 로마는 아켈라오를 프랑스의 고을이라는 곳으로 추방하였고, 그때부터 이 지역은 분봉왕 없이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빌라도였습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4명의 헤롯 중 대헤롯이 예수님 출생당시 왕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센파, 열심당

니다. 예수님께 심자가형을 선고했던 바로 그 총독입니다. 빌라도 이후 바울 때는 벨릭스, 베스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유대왕, 분봉왕, 총독이었다면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유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시키던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는 ‘유대인 최고 자치의결기관’입니다. ‘산헤드린’은 ‘모여 앉는다’는 뜻

이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로 구성된 71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권은 비록 로마나 헤롯왕이 가지고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법적 기능과 입법적 기능(율법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행정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최고의 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이 유대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 가는 지도자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의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과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정부를 통해서 성직을 매수하고 헤롯이나 총독에게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즐겼고,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함으로써 백성들을 금전적으로 착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고 성전에서 제물을 팔아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에서도 등장하는 직책이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약에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14면으로 계속)

선교지 소식

니카라과 연합장로교단

총회 건물 입주 감사예배

2019년 8월 8일은 니카라과 장로교회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뜻 깊은 날입니다.

니카라과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11개 교단 19 가정의 장로교 선교사들과 장로교 선교사들이 개척한 22개 교회 니카라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니카라과 연합장로교단 총회 건물 입주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니카라과 연합장로교단 총회 건물 입주 감사예배를 드리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입주 감사예배는 김영두 선교사의 사회로 Jorge Castillo 목사의 교독문 낭독, Alberto Rodriguez 목사의 기도, 김성현 선교사의 성찬 예식 집례, Enrique Zamora 목사의 성경봉독, 김인선 선교사의 특송에 이어서 니카라과복음화 선교회 회장 김종훈 목사의 설교, 이동홍 선교사의 경과보고, 니카라과 복음화 선교회 상임이사 윤희주 장로의 축사, 이 건물을 도네이션한 Hope Nivaragua를 대표해 축하하기로 하였던 한미경 사모가 뉴욕 기상 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되어 김연희 선교사의 대독, 니카라과 복음화

선교회 상임이사 노성보 목사의 권면에 이어서 오영관 선교사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Hope Nicaragua의 기도와 섬김으로 사용되었던 클리닉 센터와 신학교 건물을 Nicaraguan Cristian Academy에 도네이션하기로 하였으나 작년 니카라과 사태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니카라과 복음화 선교회의 섬김으로 니카라과 연합장로교단 총회 건물로 사용하게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입니다.

앞으로 니카라과 연합장로

교단 총회 사무실과 한방센터 그리고 니카라과 연합장로교 신학교 건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중남미 최초로 예정 통합, 예정 함석, 예정 배석, 예정 대신, 예정 고신, 예정 순장, KPCA, KAPC, PCA, PCUSA, C&MA 11개 각기 다른 교단 파송 선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니카라과 연합장로교단의 기초를 다져가게 됩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주후 2019년 8월 8일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책소개

“광야를 살다”

저자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진희 목사가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이란 부제를 달고 “광야를 읽다” 후속으로 내놓은 “광야를 살다”가 최근 출간됐다. 전작 “광야를 읽다”(2017년)는 ‘대통령의 서재’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번 책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가 추천사를 썼다.

성경 속에 등장한 13곳의 광야를 건너며 하나님과 동행한 성경 인물들의 삶과 신앙이야기를 쓴 이 책을 추천한 유기성 목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에 대해 이처럼 잘 정리하고 광야 같은 우리 삶을 이처럼 잘 드러내어 깨닫게 해주는 책도 흔치 않다”고 추천사를 썼다.

저자 자신도 ‘광야는 늘 변화무쌍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어제의 광야가 아니다’라며 ‘어떤 광야를 지나든 광야는 다 어렵다...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처음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두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의 광야’라고 말한다.

저자는 “광야는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라며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된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그들이 광야에서 나오게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를 잘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보다 먼저 광

‘광야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방법’

야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날 광야를 통과하는 독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책은 1. 가인의 광야: 쫓겨난 광야, 2. 아브라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3. 하갈의 광야: 버림받은 광야, 4. 요셉의 광야: 침묵의 광야, 5. 모세의 광야: 잊힘의 광야, 6.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불순종의 광야, 7. 롯과 나오미의 광야: 상실의 광야, 8. 다윗의 광야: 탄식의 광야, 9. 엘리야의 광

야: 영적 침체의 광

야, 10. 포로기의 광야: 절망의 광야, 11. 세례자 요한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12. 예수님의 광야: 십자가의 광야, 13. 바울의 광야: 장하의 광야로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신앙선배들의 광야를 소개하고 있다.

또 장마다 사진과 그림, 맨 마지막에는 인물에 대한 압축

내용을 도표로 만들어 첨부했다.

필자 이진희 목사는 본지 칼럼 ‘성경의 압축파일을 풀어라’의 저자로 본지 연재 후 단행본을 출간했다. 이외에도 “익숙한 성경 낱설게 읽기”, “올해? 그건 알아서 뭐해?”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 등 많은 저서가 있다.

총 340페이지, 두란노 발행. ▲저자 이메일:jhinlee1004@yahoo.com (유원정 기자)

하나님은 총기 폭력 증오하신다!

<1면에서 계속> 그레아만 모든 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CT가 문제를 보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총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총은 스포츠 사격

및 사냥을 포함해 합당한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총은 일상생활에서 운전, 화재, 비행과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항목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총기 활동은 반드시 규제돼

야만 한다.

전미총협회(NRA)의 주장에 반대로 총기소유 자유권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권리를 지지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조화를 위해 규율 및 지역 법, 소음

법 및 기타 많은 “제한”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땅의 폭력(죄성)을 고려해 총기소지의 정당성을 지지하지만, 총기 구매 및 사용을 규제할 필요도 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머신건 같은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총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인

물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총을 사거나 소유한 모든 사람의 신분이 기록되며,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의 폭력이 제거될 수 있을까?

문제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혈관 깊숙이 배여든 죄성에 있다. 그리고 영화나 미디어

를 통해 총기나 무기로 인한 살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한마디로, 폭력이 일상화되는 현실에 살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모방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안전향상은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들을 참으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주실 수 있는 열정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 수 없다.

드라마 신약 (2)

<13면에서 계속> 먼저 서기관, 율법사,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쉽게 풀어서 가르침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사들은 모세 시절에 기록된 모세오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유대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모였던 회당에서도 율법을 해

석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센파 사람들은 서기관, 율법사, 랍비들과는 또 다른 성격의 띠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는 ‘경건주의자들’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작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비 일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집단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하시딤은 성전회복이 목표였고 마카비는 나라의 독립이 목표였습니다. 이때 마카비를 지지했던 부류가 사두개파이며, 반대했던 부류가 바리새파

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속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 부류가 에센파였습니다.

사두개파는 헬라화 된 유대인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독의 후예들로서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점은 성전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의 편에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과 스스럼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하스몬 왕가와도 결탁하고, 로마제국과도 결탁하면서 유대사회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계층이었으며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이나 천사와 영의 존재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들의 대적점에서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정결예식과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을 엄격하게 지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을 인정하고 존경했기에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받은 민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구약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책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구전되는 계율도 다 지키고,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사와 악마의 존재도 인정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들의 삶이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세네파는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며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대부분의 생활을 사해 지역의 콤파에서 수도원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아주 가까운 동굴에서 그들이 필사한 성경인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라고 추정

됩니다.

열심당은 뚜렷한 신학적 입장을 가진 종교적 당파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열성적 민족주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켈롯당이라고도 불리는데 로마에 대하여 매우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기에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어느 왕에게도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다. 오직 하나님만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인물은 베드로(눅6:15)입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임승쾌 장로)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Don't give up. 포기하지마 (캐럴 아이들먼 / 규장), 나를 돌아보는 시간 (김유배 / 규장),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한홍 / 규장), 행복예수 (김형석 / Denstory), 하늘과 바다에서 건진 이야기 (이보영 / 대한기독교서회)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영어로 보는 성경 (30)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Hosea 6:3,6

3)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As surely as the sunrises, he will appear;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s, like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6) For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and acknowledg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NIV 1984)

WORD & IDIOM

* acknowledge: 인정(시인)하다 * press on: 서두르다, 힘쓰다, 분발하다 * water: 물을 대다 * as surely as ~: ~와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 the sunrises: 일출, 동틀 녘, 해돋이 * appear: 나타나다, 보이기 시작하다, 나오다 * winter rains: 겨울비, 늦은 비 * spring rains: 봄비, 이른 비 * desire: (간절히) 바라하다 * mercy: 자비, 인애, 은혜 * sacrifice: 제물, 희생물 * A rather than B: B라기보다는 A * burnt offerings: 번제

GRAMMAR

3) Let us acknowledge the LORD;
우리가 인정하자 (그) 주를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우리가 힘쓰자 그를 인정하기를 ⇒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기를 힘쓰자.

As surely as the sunrises, he will appear;
일출과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그는 나올 것이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s,
그는 우리에게 올 것이다 겨울비(늦은비)처럼
like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봄비(이른비)처럼 땅에 물을 대다 ⇒ 새벽녘의 일출과 같이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오실 것이다; 그분은 땅에 물을 대는 겨울비와 같이, 봄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 <press on> 다음의 <to acknowledge>는 <To+V> 즉 <동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press on>의 목적어가 되는 동시에 또한 그 자체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To+V>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로는 want, wish, hope, decide, expect, plan, manage, promise, agree, ask, pretend 등을 들 수 있다. Ex) I want to know Jesus Christ.

6) For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and acknowledg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s.
왜냐하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 번제보다 ⇒ 왜냐하면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원한다.

* <I desire mercy, not sacrifice>에서의 <not sacrifice>는 <I don't desire sacrifice>와 <I desire mercy>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짧게 만든 구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장의 길이를 줄인 것 말고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음도 알아 두자. 즉 원하는 것은 명사 앞에 <not>를 넣음으로 문장의 원 동사를 부정하여 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desire>는 <to+V>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다. 6절에서의 <desire>를 활용하여 <I desire to acknowledge God>이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명사 <acknowledgment>를 동사형으로 바꾸고 그 앞에 <to>를 넣어야 하며 <to acknowledge>뒤에는 전치사 <of>가 필요 없으므로 바로 목적어가 되는 명사(God)가 와야 한다.

STUDY & THOUGH

■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까닭이다. 3절의 내용은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한 남의 자들의 외침이다. 여기서 12-2월에 내리는 겨울비는 우량이 많으며 파종에 매우 필요한 비이며, 3, 4월에 내리는 봄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다. 이러한 비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미한다.

■ 6절은 구약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mercy>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의식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해준다.

■ Without active fellowship with God, there is no true faith.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바야사를 꾸짖어 가라사대(왕상15:32-16:1)

북이스라엘의 3대왕 바야사와 그의 아들 엘라왕도 북이스라엘 초대왕의 뒤를 이어 계속 악을 행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처음 사람이 어떻게 기초를 세워놓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가는 사람을 막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산당에서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우상을 숭배하자 순식간에 타락해 버렸습니다. 처음 사람이 나쁘게 길을 들여 놓으니까 그 아들 역시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한분만의 지하며 경외하며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선지자 예후에게 하나님께 바야사를 진토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못된 짓을 하는 예로보암 집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예로보암이 하던 그대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

화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왕상16:1-7)

문은 바야사와 엘라가 멸망당하는 내용의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을 행해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야사를 진토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못된 짓을 하는 예로보암 집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예로보암이 하던 그대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

수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왕상16:8-14)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4대왕 엘라왕과 7일 동안 왕이 되었다가 스스로 궁지에 몰리자 불을 질러 죽어버린 시므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쟁 중인데도 바야사의 아들 엘라왕은 술 취해서 놓고 있다가 신복 시므리에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시므리는 나라의 군사 절반을 맡은 군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반의 군대는 지금 블레셋의 김브돈에서 전쟁 중인데 왕을 보호해야 할 장군이 왕을 죽이고

목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왕상16:15-20)

본문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시므리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됐는데 또 다시 오므리라는 장군이 시므리를 치려고 김브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시므리는 지금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다스리기도 전에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최후 거점인 위소에 들어가서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왕이 되지 7일 만에 죽었을까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19절). 겉으로 보면 타락한 왕을 죽이고 자신이 나라를 잘 이끌어 보려고 한 것이 같이 보이지만 자신도 그 전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늘 순간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눠(왕상16:21-28)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6대왕 오므리와 그의 아들 7대왕 아합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힘을 다해 사마리아 산 위에 성을 쌓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앞으로 많은 주변국들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지만 이 사마리아 성은 끝까지 점령당하

토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왕상16:29-34)

하나님께서 아합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 그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잔인하고 악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전파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서로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늘 위로부터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귀한 믿음의 만남이 돼야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택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32-490-7000, Fax. (82)32-436-5770 서울시 동광구 광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안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무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예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4:00 주일5부: 오후 12:30 주일6부: 오후 8:00 주일7부: 오후 2:30 (점심예배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61, (82)2-2646-3184 서울시 마포구 독막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8, Fax. 9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쉼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평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독막동 520 (158-808)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산구 안암동 3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월일): 오전 5:30(토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침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775-9191, Fax. (043)273-8114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흥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설립 50주년 희년 맞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를 찾아서 - ②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 대형학교 건축 “한명만 구원 받아도 실패 아니다”

학원선교의 꿈을 품고

‘선교의 꽃은 학원’라는 꿈을 품고 있던 최광원 목사. 그에 뜻하지 않게 학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은 1995년 최 목사가 아르헨티나 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르헨티노를 위한 선교에 앞장서던 시기였다. 당시 후후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최영진 서현우 집사부(현재 목사가 돼 아르헨티노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살타주에서 사역하고 계심)와 인연이 돼 후후이, 살타 지역 인디오 마을을 오가며 선교해오던 때다.

“후후이에 기독교가 하나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운영이 어려워 폐교지경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최광원 목사의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2만 달러만 그 학교를 인수할 수 있다는 말에 최 목사는 “이 학교를 인수해서 교회에 바치자”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2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학교는 막상 학교를 인수하겠다고 하자 만 달러를 더 요구하게 됐고 최 목사는 낙심하고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한 성도가 최 목사를 찾아와 목회비로 쓰라곤 봉투를 두고 갔는데 그 봉투에는 뜻밖에도 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고 그 길로 학교 운영권을 매입, 제일교회에 헌납하고 학원선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원선교가 그리 만만치는 않았다. 10여 년 동안 겪어야 했던 고난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르헨티나가 카톨릭이지만 특히 변방에 있는 주라, 카톨릭 사상이 뿌리 깊어 음해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요. 그러나 또한 가지 어려운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는 말처럼, 안에 있는 분이 회의와 불만을 가지고 부담을 주었죠. 너무 힘들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였고 많은 내적 고민과 고통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오

늘까지 부흥을 이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을 회고한다.

기자는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에 대한 최광원 목사의 간증을 듣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1600킬로 떨어진 후후이로 향했다.

7월 17일 새벽 비행기로 출발해 2시간여 만에 후후이에 도착했다. 후후이 공항에는 학교를 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성업 목사 부부가 직접 마중을 나와 주었고 곧바로 학교로 안내하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5년 학교인수, 2007년 부지 구입

1995년 후후이 학교를 인수할 당시 임대주택을 개조해 사용했다. 열악한 상황

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했지만 졸업생들이 상위급 성적을 내며 진학하게 되자 학교가 인정받게 됐다. 그러다 2006년 김성업 목사가 후후이 학교 책임자로 오게 됐고 제일교회는 2007년 5월 현재의 학교 부지를 극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원래 현재의 학교 건너편 땅을 매입했지요. 50만 달러 정도의 땅을 계약하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3주동안 있었던 다니엘 작정 기도회 기간에 매입금액이 충당되기도 남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는 날 어느부동산 관계자가 전화를 했어요. 더 좋은 땅이 나왔다는 거죠. 그 땅은 다들 어지지도 않았고 계약한 땅의 4배 정도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땅을 매입한 단계라 거절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두 귀찮아 60만불 달러는 것을 30만 달러면 사겠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32만 달러에 금액이 정해져 매입이 성사됐지요.”

김성업 목사는 현재의 땅을 구입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새로운 땅을 매입하고 앞서 구입한 땅은 조금씩 구획을 나눠 팔기 시작했더니 현재 학교 부지 값이 고스란히 남았다며, 결국 지금 건물에 들어선 땅은 거저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건축기간 2년반, 2011년1월 11일 봉헌예배



후후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업목사

재학생 700여명, 전도 받은 교사들 헌신적 교육 최고의 시설...주변 10년새 도시 형성 함께 발전

학교 신축부지는 후후이 센트로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이다. 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사방은 허허벌판이었고 몇몇 개인주택이 뜬뜬 문 자리하고 있었다.

폭 100m 길이 400m(약1만 평)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건물 3동과 실내 체육관 2개, 실의 농구장, 축구장 2개와 수영장을 꿈꾸며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교회 건축위원회 김성업 목사가 직접 하기로 했다. 일군 40여명과 건축사, 엔지니어, 변호사, 계리사를 팀으로 구성해 직영함으로 건축비를 4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건축은 2년 반 동안 이어졌고 2011년 교인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헌예배를 드렸다.

건축하며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제일교회에서 학교 건축비를 일반현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특별헌금 안하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의 인도아래 당회와 온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은혜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니 한 번도 건축비가 끊김이 없이 총당 해주실 수 있었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다시 하라하면 못할 것 같아요..(웃음) 신학만 하고 운영이나 건축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으니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건축하면서 육적으로 잠 못 자고 신경 쓰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고소 사건 한번 안 나고 잘 마쳤는데 정작 겁이 나는 것은 ‘이렇게 짓고 나서 학생들이 없으면 어찌지?’ 하는 것이었죠. 한번은 공사하다 교실을 둘러보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적 부담이 되던 때였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단 한명만 구원 받는 다 해도 실패 아니야, 한 영혼을 그 돈으로 살 수 있겠어?’라고 하시며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때부터 또다시 힘을 얻게 되고 소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후후이 최고의 학교로 우뚝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는 현재 재학생 700여명, 교직원 88명이 있으며, 오후에 진행되는 영어, 체육, 컴퓨터, 체조, 수영 학교 등을 가르치는 교사 40여 명이 함께 이뤄가고 있다.

학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25m X 13m의 넓은 수영장은 지붕이 최첨단 개폐식으로 돼있고 교실 하나 하나, 실내체육관시설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좋은 시설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인교육을 모두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김 목사는 귀땀한다.

“우리학교는 성경공부를 맡 놓고 하지요. 조회 때 기도를 하고 성경과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3명의 사모님이 계셔서 주일학교처럼 맡겨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요. 선생님들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교통이 파업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 거의 다 출근하는 교육열을 보여달라 감사한 지 모릅니다”라고 교사들을 향한 칭찬도 잊지 않았다. 교사들이 이렇듯 헌신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성업 목사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의 관계를 중요시 하고 가능한 필요를 공급하려고 애쓴다는 것. △노사관계로서가 아닌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려 사적인 이야기도 들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후후이 전통축제 ‘레이나’, 한국 알리며 전도 기회로

학교의 특별한 행사를 하나만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레이나 축제’(여왕선발대회)를 소개한다.



1년에 1번 학생회 날 행사인 이 행사는 후후이 주에 7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축제라고 한다. 매년 여왕을 뽑고 5월부터 꽃차 만들어 9월에 행진을 갖게 되는데 이 여왕은 중학교 3, 4학년 학생이 자진해서 출전해 뽑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제일교회 교인들은 몇 개월 동안 교회에서 바자회 등으로 자금을 모아 후후이로 이동한다. 2박3일 동안 자비량으로 와서 레이나 행사 기간 중에 한국음식을 만들어 판다. 한국음식도 홍보하고 학생들은 여왕을 뽑는 흥겨운 시

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야말로 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말하는 김성업 목사.

“이 레이나 축제는 후후이 주와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의 행사뿐만 아니라 제일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사랑 섬김의 전도축제가기도 하지요. 지금은 학부모들과 지역 현지인들도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학교주변 신도시로 변화, 더 큰 꿈꾼다

건축당시 허허벌판이던 학교주변은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돼 있다.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가가 형성됐다. 주변 가득 주택이 들어서 중류층 이상이 모이는 도시로 변했다고 한다. 10년 사이에 학교와 도시가 함께 발전했음을 볼 수 있었다.

“학교가 건축됨으로 새로운 도시가 생성된 것을 이곳 주에서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숙제가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점점 더 복음화가 되고 이 학교를 통해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 선교사나 목사, 정치인도 나와서 이 땅을 세우기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언젠가는 대학을 세우고 싶은 꿈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해서 교생도 많았지만 당회장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 주시고 신뢰하고

기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오늘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김성업 목사는 말을 맺었다.

지금까지 큰 꿈을 이뤄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후이제일기독교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에노스아 이레스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